

고전(苦戰) 없이 고전(古典)읽기

이희성, 임예성 지음

새롭게 보는 고전문학

지은이 이희성, 임예성

발행 2021년 03월 00일

펴낸이 한건희

펴낸곳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20140715(제2014-16호)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화 1670-8316

이메일 info@bookk.co.kr

ISBN 979-11-372-0000-0

www.bookk.co.kr

© 이희성, 임예성 2021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들어가는 말》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속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다. 그중 세계고전문학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전은 어렵다'라는 편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세계고전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관통했던 생각들과 사상들을 교감하고 더불어 세계고전문학 속에 숨어있는 문학, 사회 역사, 철학 등의 여러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 책은 기독교 핵심 가치 드러내기라는 주제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인 고전의 장벽을 허물어주기 위해 쓰였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자아와 영혼, 사랑, 고난과 삶, 정의 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 성경의 개념들이 실제라는 문학 속 삶적 무대에서 어떻게 압축적으로 드러나는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먼저 책과 저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하는데 노력했다. 시대와 상황을 이해하면 책의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희곡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특징을 미리 분석하여서 각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제일 핵심인 것은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조명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확장시키고 나에게 까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마련하였다. Pop Quiz나 별도의 참고 내용을 담은 부록을 활용하면 이야기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자료도 유익하게 참고하기를 바란다.

세계고전문학은 결코 남 일이 아닌 이야기이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며 우리의 연민을 자아내기도 한다. 문학 속에는 우리들의 삶이 담겨있다. 문학 속 인물들은 책 안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현재 내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나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차원높은 자발적인 태도는 책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글과 인물들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원석과도 같은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이야기말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쁨을 세계고전문학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중요하다고 해서 읽으라고 하니까, 지식 경쟁에서 잘나보이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보고 벽찬 마음으로 발굴하는 광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이희성 임예성

차례

• 들어가는 말 3

제1장 이루어질 수 없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7

-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 우리들의 문학 편지 12
- 부록 윌리엄 셰익스피어 더 알고싶다!

제2장 복수의 비극 **햄릿** 23

- 햄릿의 배경이 된 암 레트(Ambeth) 설화
- 《햄릿》 지도
-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3장 편애의 비극 **오셀로** 35

- 오셀로를 이룬 다양한 문화적 배경
- 《오셀로》 지도
-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4장 권력찬탈의 비극 **리어왕** 47

- 국가의 내부적 불안을 담은 리어왕
- 《리어왕》 지도
-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5장 질투의 비극 **맥베스** 57

- 맥베스의 실존 인물, 맥 베하드
- 《맥베스》 지도
-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6장 크리스천과 그의 가족이 천성으로 기면서 겪는 역경의 이야기 **천로역정** 69

- 천로역정 조선타로 옮기다- 최초의 영한 번역소설
- 한눈에 보는 천로역정 MAP
- 천로역정 부
- 천로역정 2부
- 나의 천로역정 그리기

제7장 불안한 젊음에 바치는 영혼의 자서전 **데미안** 85

- 독일을 대표하는 영원한 청춘의 기록자, 헤르만 헤세
- 데미안에 숨어있는 역사적 상황 및 에피소드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8장 서로 다른 사랑을 나타내는 남녀의 이야기 **좁은 문** 101

- 자신의 삶을 책으로 드러낸 앙드레 지드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 '사랑'을 서로 표현하기

제9장 자기회생과 속죄를 통해 성자로 거듭나는 한 인간의 기록한 이야기 **영화: 레미제라블**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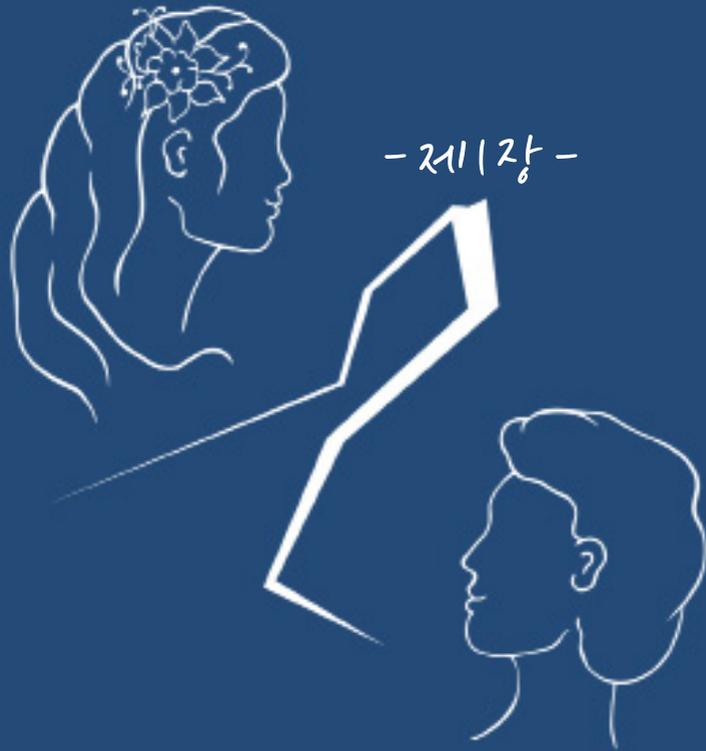
- 프랑스가 낳은 대문호 빅토르 마리 위고
- '레미제라블' 역사 알고보면 더 재밌다.
-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 퀴즈타임! X? 126

• 감사의 말 129

《로미오와 줄리엣》

“오 로미오, 로미오, 왜 그대는 로미오인가요?”



영국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1564년 영국의 중부 지방 워릭셔 주의 작은 읍 스트랫퍼드 어폰 에이번에서 태어났다.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중산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풍족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1577년경부터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중단했고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셰익스피어는 주로 성서와 고전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웠다.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셰익스피어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후에 그는 런던으로 이주하고서 본격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일약 명성을 얻었고, 생전에 '영국 최고의 극작가' 지위에 올랐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처럼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로 걸작을 남겼으며 그 희곡은 인류의 고전으로 남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다. 당대 여타 작가와 다르게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자연 그 자체에서 깊은 생각과 뛰어난 지식을 모은 셰익스피어는 당대 최고의 희곡 작가로 칭송받는다. 후에 그는 은

퇴하여 유복한 여생을 보내고 1616년 세상을 떠났다.⁰¹

셰익스피어 대중 극장의 시대

셰익스피어가 이룬 값진 성취는 뛰어난 개인의 재능의 산물일 뿐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역량의 산물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가 활동한 시기의 영국은 한마디로 격변기였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태동, 종교 개혁, 절대 군주제를 근간으로 한 국민 국가의 성립, 핵가족 제도와 가부장제의 강화,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 현재의 영국을 만든 근원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였다. 또한 당시 런던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의 결과로 물질적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채워 줄 전문 극장과 극단, 배우, 그리고 극작가가 영국 역사상 처음 등장했다. 셰익스피어는 가끔 배우도 겸한 전업 극작가이자 소속 극단의 공동 주주였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대중 극장은 돈만 내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고, 부랑자에서 귀족, 국왕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을 관객으로 포괄했다. 대중 극장은 관객층 만큼이나 다양한 당대의 온갖 상충되는 이념과 주장과 목소리들이 열띤 경합을 벌이던 장소였다. 작품의 흥행에 성공하려면 셰익스피어는 다양한 관객들의 서로 다른 주장과 욕구를 반영하면서도 이들 관객 중 어느 쪽도 표나게 편들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절묘한 솜씨를 발휘해야 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에는 놀라울 정도의 '중립성', 그리고 관객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하는 '다의성', '불확정성' 등의 특징들이 있다.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작가들은 무대에서의 상연을 위해 희곡을 썼지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었다. 극작가가 쓴 작품이 일단 극단에 넘어가면 그 작품의 소유권은 극단에 귀속되는 게 관례였고, 극단 소속 배우들은 자신들의 공연에 미칠 영향을 고

려하여 극작품의 출판에 소극적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친필 원고를 남기지 않았고,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출판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읽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셰익스피어가 쓴 그대로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셰익스피어 텍스트로 인정받고 셰익스피어 정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인 제1이절판(First Folio, 이하 F1)이다. F1은 셰익스피어 본인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사후인 1623년에 셰익스피어와 같은 극단 소속의 동료 배우이자 친구였던 존 헤밍스와 헨리 콘텔이 주선하여 출판한 전집이다. 36개의 극작품 가운데 18편은 F1에 수록되기 이전에 이미 사절판으로 출판된 바 있다. 질이 매우 떨어지는 '악사 절판'도 있고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양사 절판'도 있다. F1과 사절 판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후세의 학자들이 편집본을 만들어 내고, 이 편집본이 현재 우리가 읽는 (조금씩 서로 다른) 셰익스피어 텍스트가 되는 셈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 비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다른 극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알려진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어떤 작품이 그것을 쓴 작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공동체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던 때인 만큼, 근대 이후 우리가 삼는 '표절의 혐의 없이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선배 작가들의 작품에서 많은 부분을 자유롭게 빌려다 썼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인공과 비슷하게 비극적 죽음을 맞는 비운의 두 연인이라는 유형은 옛 전설이나 신화, 중세 로맨스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작품들을 걸쳐 탄생한 브룩의 장시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출전으로 간주된다. 겹겹의 출전에 기대고 있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언제 집필되었는지는 정확하

01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키백과, 2021/02/16, https://ko.wikipedia.org/wiki/%EC%9C%8C%EB%A6%AC%EC%97%84_%EC%85%B0%EC%9D%B5%EC%8A%A4%ED%94%BC%EC%96%B4

게 그 연도를 추정하기 어렵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 F1 이전에 이미 두 개의 사절판이 존재했다. 제사절판(First Quarto, 이하 Q1)에 비해 제2사절판(Second Quarto, 이하 Q2)는 상대적으로 질이 좋아 셰익스피어 본인이 직접 쓴 원고의 출판본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게다가 F1에 실린 텍스트도 프롤로그가 빠진 점을 제외하면 거의 Q2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장 중요한 출판본은 Q2가 된다.⁰²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로미오와 줄리엣, 몬터규와 캐플렛, 캐플렛의 티볼트와, 몬터규의 벤볼리오와 머큐쇼, 줄리엣의 유모와 로렌스 수사가 있다.

로미오: 사랑에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고 자신의 친구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복수를 하는 불같은 성격이다.

줄리엣: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잘 믿는 똑똑한 성격이다.

몬터규: 품위 있는 성격이다.

캐플렛: 말을 험하게 하고 품위와는 거리가 있는 성격이다.

티볼트: 각 집안의 어른들은 서로 만나도 싸우지 않는데 우연히 서로 만나면 늘 먼저 시비를 거는 성격이다.

벤볼리오: 로미오 친구들 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상황설명을 잘하는 성격이다.

02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서경희 옮김, 을유문화사, 2016, 낭만적 사랑의 신화: '로미오와 줄리엣' (pp.199-231).

머큐쇼: 로미오 친구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이상한 편,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척하고 싶은 엉뚱한 성격이다.

줄리엣의 유모: 굉장히 말이 많지만 때로는 고민거리를 잘 들어주며 되도록 좋은 쪽으로 가게 해주려는 성격이다.

로렌스 수사: 좋은 마음으로 이어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벗어나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성격이다.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캐플렛과 몬터규라는 가문은 예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마주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 상황에 로미오가 등장하게 된다. 그 때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폭 빠져있는 로미오를 보고 그의 친구들은 더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곳을 안다며 같이 그곳을 가자고 한다. 그래서 로미오는 친구들에 말을 확인하려고 캐플렛의 집안잔차에 가게 된다. 거기서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고 첫 눈에 반한다. 그 뒤에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사랑해 비밀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결혼 한지 몇 시간 뒤에 로미오는 티볼트에 의해 머큐쇼가 죽은 것을 보고 티볼트를 죽이게 된다. 그 일로 결국 로미오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줄리엣은 절규를 한다. 그 상황에 줄리엣 아버지인 캐플렛은 줄리엣에게 파리스와 결혼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줄리엣은 자신의 결혼 주례를 맡아 주었던 로렌스 신부님에게 찾아가 해결책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로렌스 신부님은 줄리엣에게 24시간 동안 효과가 있는 수면제를 주며 줄리엣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게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날 밤에 줄리엣은 수면제를

먹었다. 다음날 캐플렛 집안사람들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른다. 한편 이 계획을 로미오에게 알려려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는 로미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로미오는 그의 부하가 전해주는 줄리엣의 소식을 듣고 먹으면 바로 독약을 챙겨 그의 부하와 줄리엣의 무덤으로 간다. 그 무덤에 도착한 로미오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약을 먹고 죽게 된다. 로미오가 죽은 뒤 바로 줄리엣은 수면제의 효과가 떨어져 일어나게 된다. 줄리엣은 자신을 데려온 로렌스 신부님에게 로미오를 찾을 때 캐플렛이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그래서 로렌스 신부님이 망을 보고 있을 때 줄리엣은 로미오를 발견하고 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죽게 된다. 그 이후에 두 집안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화해를 한다.

1. 두 가문의 미움 - 이름

캐플렛 가와 몬터규 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유가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두 집안이 싸우게 된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사랑과 미움을 분간하는 유일한 수단은 이름입니다. 두 수장의 병든 마음에서 비롯된 헛말로 평화가 분열된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름은 그 어떤 명분이나 실체보다 더 뚜렷하게 상대방을 미워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름이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요 7:24)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줄리엣은 미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름의 굴레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아 갑시다.

2. 로렌스 수사의 태도

로렌스 수사가 좋은 의도로 허락해준 이 사랑이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로렌스 수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해줍니다. 인간의 감정 특히 사랑과 미움의 본질에 무지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밀 결혼과 줄리엣의 가짜 죽음이 가져온 결과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3. 사랑과 미움(대립과 갈등)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어떤 사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 아가서에서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내(아 2:16, 7:10)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자신과 적대관계인 티볼트를 사랑으로 감싸보려 하지만 그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요 13:34)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고전 13:4).

이처럼 사랑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간구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Pop Quiz (p.87)

“오, 난 운명의 노라개다.”라고 말하는 로미오. 로미오는 과연 운명에 굴복할까요 거스를까요?

4. 결혼 후 몇 시간 뒤에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사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줄리엣 친척인 티볼트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가문을 넘어 사랑을 봅니다. 사랑으로 믿고 용서하며 가문을 넘어 사랑을 보는 줄리엣의 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5. 일편단심 줄리엣(p. 120)

줄리엣은 로미오를 향해 일편단심이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파리스와 결혼해야 할 상황에서 로미오를 그대로 사랑할 건가요?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6. 사랑의 모순어법

두 젊은이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밝아 보이듯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더 나빠질수록, 그래서 그들의 절망이 더 깊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절망이 없었더라면 평범한 사랑 이야기가 될 뻔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미움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사랑을 만날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만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머큐쇼에 의해 꿈과 욕망의 세계로까지 확장된 모순은 두 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미오가 앞서 말한 “싸우는 사랑” 또는 “사랑하는 미움”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움이 더 커져 원래의 적대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살아 있는 죽음”과 “죽어있는 삶”은 두 형태로 분리되어 나타났다가 로미오가 죽는 장면에서 양극 사이의 거리가 거의 사라집니다. 줄리엣의 가짜 죽음(그러나 죽음이 실재가 된다)과 가족들의 슬픔은 그런 의미에서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순어법은 줄리엣의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줄리엣이 자신을 찌르

는 ‘행복한 단검은 두 집안 간의 미움과, 별들의 휘방과, 그에 맞섰던 순수한 사랑의 대립과 갈등을 다 녹여 버립니다.

7. 두 연인의 희생

약을 먹고 잠든 줄리엣을 보고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나중에 깨어난 줄리엣은 죽은 로미오를 보고 뒤따라 목숨을 끊습니다. 두 연인으로 인해 캐플렛가와 ‘몬타규가’는 서로 화해를 합니다. 부모들의 싸움을 자신들의 죽음으로 문은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미움을 위해서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줍니다(잠 10:12).

8. 비극? 희극?

많은 인물들이 죽임을 당하며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입니다. 결국 육체적으로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의 자결은 두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합일의 아름다운 행위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젊은 연인이 서로를 갈망하며 나누기를 원했던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은 슬픔과 비극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순수한 사랑’은 비극인가요, 희극인가요?



영화 《Romeo + Juliet, 1996》 포스터⁰³

우리들의 문학 편지 1

책에서만 보았을 때 작가는 중세시대 때에 비극인 이야기를 즐겨 쓰는 사람 같다. 하지만 실제로 작가는 굴곡이 없는 생활을 해왔지만 실제로 이 작가가 겪은 일처럼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만 쓰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상황이 어땠는지도 알려주는 것 같다.

내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마 5:43)

⁰³ 영화 《Romeo + Juliet, 1996》 포스터, 제작 파라마운트 픽처스, 출처 네이버영화

→ 두 가문이 서로 원수 사이인 부분과 두 가문의 사이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못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벤 4: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3:20)

→ 친구들에 대한 우정(티볼트와 머큐쇼 싸움에 휘말린 로미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많은 아쉬움과 내용 중 주인공들이 꼭 그렇게 해야 했나라는 느낌이 많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뒤에서 만나는 타이밍이 조금만 맞았더라면 하는 마음과 굳이 친구들을 따라가 그 잔치에 가야 했었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지만 원작으로 읽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읽다가 아버지가 딸에게 욕하는 부분이나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따라 죽고 그 뒤에 또 따라 죽는 것이 제일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가 있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밀 결혼을 할 때 알고 있었던 로렌스 신부님의 생각(둘로 인해 두 집안 사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 것)과 로미오가 짝사랑을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과 줄리엣에게 첫 눈에 반해 그다음 날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신선했다. 그리고 줄리엣이 로미오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용에서 보면 로미오는 사랑에 더 집중을 하는 반면 줄리엣은 상황판단도 빠르고 머리가 좋다. 그리고 몬터규보다 캐플렛이 더 귀족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캐플렛은 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고 해서 험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면 줄리엣에게는 유모라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아닌 유모가 키워서 그런지 유모가 친엄마 같고 진짜 친엄마가 새엄마 같은 느낌이었다.

중세시대에 대한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우리들의 문학 편지 2

시대를 뛰어넘는 불멸의 로맨스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누구나 알 것이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실은 숨어있는 기독교 핵심 가치들이 많다. 기독교 핵심 가치 드러내기인 이번 창의활동 주제와 잘 맞는 책이다. 성경의 개념들이 실제라는 문학 속 삶적 무대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볼 것이다. 이 순수한 사랑 속에 어떤 가치들이 담겨있는 것일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앙숙인 두 집안 사이에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이 사랑을 허락해준 로렌스 신부는 둘의 사랑으로 두 집안의 원한이 해결되길 바랐다. 그러나 두 수장의 병든 마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미움은 작은 헛말로도 평화를 분열시킨다. 미움은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28) 두 집안은 특별한 이유랄 것도 없이 마주치기만 하면 싸움을 건다. 줄리엣은 그 원인이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챈다. “오 로미오, 로미오, 왜 그대는 로미오인가요?” 이 유명한 대사를 통해서 말이다. 그 사람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름이 어떤 명분이나 실체보다 더 뚜렷하게 상대방을 미워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집안 간의 싸움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두 젊은이의 외길 사랑은 운명적이었다. 아가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둘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놀랍게도 로미오는 연인의

사랑으로 집안의 미움까지도 덮어주려고 했다. 원수 집안의 티볼트가 거는 태클에 “너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라며 한걸음 물러선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골 3:13) 말씀이 실재가 된 것이다.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줄리엣의 참 사랑도 감동적이다. 연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처음에는 가짜 죽음이었지만- 버렸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다(요 15:13).

젊은 연인은 부모들의 싸움을 자신들의 죽음으로 묻으며 미움에게 희생물이 되었다. “어린양”의 피로 베로나에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이 깃들게 된다. 젊은 연인이 육체적으로는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지만 영원한 합일을 이루었고,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화평을 가져다주었다. 표면적인 스토리는 비극이나 이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극적 사랑이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더 알고싶다

셰익스피어는 비극을 왜 썼을까?

1600~1601년에 쓰인 햄릿을 시작으로 1604년에 발표한 오셀로, 1605년에 쓰인 맥 베스 그리고 일 년 후의 작품 리어 왕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다. 이 모두가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어 가는 슬픈 이야기이다.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은 역사적인 사건과 가정적으로는 아들 햄릿이 열한 살에 죽고, 160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큰 충격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죽음들이 셰익스피어로 하여금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셰익스피어는 하나뿐인 아들 햄릿을 잃는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통해 아들을 잃은 상처 혹은 슬픔이 어떤 의미였을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햄릿은 죽음은 희극 《햄릿》을 쓰는데 기폭제가 되었다.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국가적 혼란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엘리자베스 1세의 사망을 전후하여 극의 분위기가 크게 바뀐다.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되던 기간 동안에는 희극을 썼지만, 여왕의 집권 말기인 1601년에 쓰인 《햄릿》을 기점으로 제임스 1세 시대에는 주로 비극 작품을 쓰게 된다. 영국은 당시 중세 봉건주의와 근대 자본주의가 충돌하던 새로운 격동의 시기였다. 셰익스피어의 문체는 한층 어두워지고 이윽고 4대 비극을 비롯한 여러 어두운 희극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셰익스피어의 문학적 감수성이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의 사회적 갈등이 위대한 극이 탄생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되어 주었다.

《햄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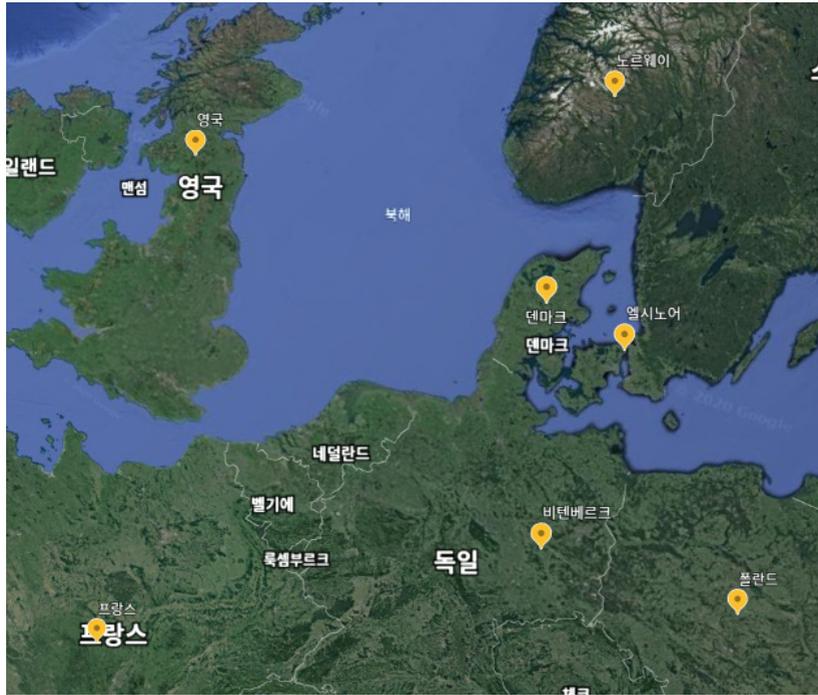
“사는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배경이 된 암 레트(Amleth) 설화

1601년, 4대 비극 중 가장 먼저 쓰였으며 이전까지 셰익스피어는 희곡과 역사극 등을 주로 썼던 만큼 동시대의 다른 비극들과는 달리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기질이 강하며 고전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많다. 셰익스피어의 창작 시기 중 가장 성숙한 예술혼을 불태웠던 제3기에 속한다. 《햄릿》은 1600년경에 집필되어 공연된 것으로, 1602년 다시 손을 보아 공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햄릿 Hamlet (원제 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은 북유럽 덴마크의 비운의 왕자에 대한 이야기이다. 덴마크를 직접 가보지 못했다는 셰익스피어에게 덴마크 왕실의 비극이 그의 대표작이 된 계기가 있다. 사실 햄릿은 오랜 전부터 덴마크에서 전해지던 비극이었고, 13세기 초에 글로 남겨진 이야기였다. 《햄릿》의 출처는 북유럽에서 내려오던 암 레트(Amleth) 설화로 배경도 덴마크이고 내용의 흐름도 비슷하나 보다 단순하고 평면적이던 철저한 복수극을 유령의 출현, 극중극, 미치게 되는 오펔리어와 그녀의 자살, 무덤자기의 익살, 포틴브라스에 대한 언급 등으로 보다 입체적인 비극으로 창조해 낸 것이다. 작품의 주인공이자 작품의 이름 햄릿은 실존 인물인 Amleth 왕자의 이름의 맨 뒷글자를 앞으로 옮겼다. 이렇듯 셰익스피어는 덴마크 왕실의 헬시노르



의 크론보르 성을 배경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옮겨 놓은 것이다.



↑《햄릿》 지도⁰⁴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햄릿: 작품의 주인공이자 덴마크의 왕자이다. 똑똑하면서도 특정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잘 세운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한다. 냉소적이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독특한 인물이며 원래는 온화하고 덕망 있는 성격이다.

클로디어스: 현 덴마크의 왕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에 매우 능하고 탐욕적이며 잔인한 성격을 가졌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거트루드: 햄릿의 어머니이자 덴마크의 왕비이다. 상당히 수동적이며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허영심이 많은 성격이다.

폴로니어스: 오페리아와 레어티즈의 아버지이다. 주책맞으며 오지랖이 넓고 간섭하고 다니는 성격이다.

라이어즈: 오페리아의 오빠이자 폴로니어스의 장남이다. 앞뒤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고 행동부터 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성격이다.

오페리아: 폴로니어스의 딸이다. 수동적이지만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다.

호레이쇼: 햄릿의 친구로, 햄릿을 도와주며 햄릿의 사후까지 장려해 준 착한 성격이다.

04 구글 어스로 희곡에 나오는 주요 지역을 표시함.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Pop Quiz (p.13)

돌아가신 선왕께서 왜 유령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신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 죽음의 사실 (p.51)

선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죄를 씻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나라면 어떻게?

유령의 말을 바로 신뢰하고 분노를 터뜨리며 바로 숙부를 살인할 것인가요? 아니면 햄릿처럼 세밀하게 확인하고 생각한 후 행동할 것인가요?

3. 햄릿의 분노

햄릿의 분노는 두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 때문이고, 두번째는 아버지를 저버리고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4. 햄릿의 미친 척(p. 87)

왕과 왕비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햄릿 북북서풍이 불 때만 미친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5. 살인

숙부는 햄릿의 아버지는 햄릿 선왕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회에서 규정한 법에서도 위배되는 살인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여섯 번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성경은 미움과 살인을 같이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햄릿도 살인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유명한 이 대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단순하게 햄릿이 살지, 아니면 자살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실과 모욕을 품으며 이대로 살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을 사후세계가 두렵지만 복수를 할지 고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명대사는 영어원문의 뜻대로 하면 있음이나 없음이나 그것이 문제로다.라고도 해석됩니다.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존재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To be or not to be. What is your answer?"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마 4:17). 라고 대답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햄릿의 대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7. 햄릿의 반발심

햄릿은 오피리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고 여자의 마음과 순정에 격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극 전반적으로 햄릿은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반발심을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까지 정죄한 적은 없나요?

8. 햄릿이 미친 척을 하는 이유

진실의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자신을 향한 위협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친 척을 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데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9.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잠 19:5) 숙부의 살인은 햄릿이 계획한 연극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10. 영혼의 죽음을 생각하는 햄릿의 갈등

햄릿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지만 숙부가 회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고민합니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 계실 텐데 지금 살해해서 숙부만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1. 두 가지로 갈리는 햄릿에 대한 평가

우유부단 vs 신중함,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동이 마비된 '철학적 사색의 왕자' 햄릿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은 탓에 정작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물입니다. 작중에서 햄릿이 복수를 계획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항상 왕의 살해를 맹세하고 과묵한 언행으로 그의 일당을 당황하게 하

지만 구체적인 복수나 수단을 모색하거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극이 끝날 때까지 차일피일 미룹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 나빠지고 부조리해지는 현실에 고민하고 치를 떨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즉, 햄릿은 유약하고 감성적인 인물입니다.

햄릿은 반대로 주체성과 합리성을 갖춘 근대적 인물입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인물의 전형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근대적 인물입니다. 햄릿이 직접적인 복수를 계속해서 뒤로 미룬 것은 그가 '복수라는 문제를 그리 단순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단순히 숙부인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문제라고 본다면, 햄릿에게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햄릿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수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하게 변한 자신의 주변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난 후,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유령의 말을 믿고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 줄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유령의 말이 사실인가는 한 것일까? 숙부의 편은 누구이며, 내 편은 누구인가? 이 오염되고 부패한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는 행동을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행동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햄릿에게 이 모든 상황이 온갖 질문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햄릿은 왕자로서 원수인 숙부의 죽음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법과 도덕 체계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무언가 썩어 버린' 덴마크 왕실의 질서, 국가의 질서, 나아가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따라서 이 복수 자연이야말로, 그가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합리적인 근대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 햄릿의 복수 자연, 그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

햄릿의 복수 자연은 그 시대 관중들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를 드러낸다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법과 종교는 복수라는 행위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 대중들은 복수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자식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라고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13. 올빼미의 전설(p. 181)

저지로 변신한 예수가 빵 장수에게 빵을 구걸했습니다. 빵 장수 아내가 그에게 큰 빵을 하나 주자, 빵 장수 딸이 엄마에게 너무 인심을 썼다고 불평했습니다. 나중에 그 딸이 올빼미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14. 오피라이어의 죽음

오피라이어의 죽음은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자살이었을까요? 그리고 오피라이어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

15. 광대의 역할

셰익스피어는 묘사기들을 “광대” 역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엄숙해야 할 묘사기들이 우스꽝스러운 광대일까요?

묘사기들은 누구보다도 죽음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햄릿과는 다릅니다. 이는 죽음이 일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광대(廣大)로 원래 있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해학으로 우리가 피해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16. 햄릿이 생각하는 인간의 실존, 선과 악,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요리의 해골과 마주한 햄릿 지금까지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죽음의 철학적 사색을 해왔던 그는 실체와 마주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나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보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17. 왕의 서신을 읽은 순간

햄릿에게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의 죽음을 체험한 햄릿은 숙명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우연히 생기는 일들에 수긍하며 삶의 종말을 결정짓는 신의 뜻을 기다립니다. “사느냐, 죽느냐”에서 고민했던 햄릿이 “Let be,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햄릿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근대인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실패로 돌아간 햄릿의 복수는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18. 햄릿과 레어티즈의 용서

결투를 치르던 햄릿과 레어티즈는 죽음 앞에서 서로 용서를 합니다. “하늘이 그대의 죄를 용서하니 나도 자네를 따를 가야”라고 말하면서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마 6:14). 독이 이미 온몸으로 퍼지고 난 뒤에야 주고받는 용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죽기 전에 서로 용서하는 모습에 다행스럽지 않으신가요?

19. 햄릿의 복수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

으니 내가 갚으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라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7-21)

햄릿은 숙부의 살인을 복수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말대로 햄릿이 악을 선으로 갚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던 햄릿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악을 어떻게 대하나요?

20.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는 세 아들들(햄릿, 레어티즈, 포틴브라스)의 태도는 모두 다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인물인가요?

21. 포틴브라스

포틴브라스는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고 삼촌이 왕위에는 햄릿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혈기 때문에 경솔하게 군대를 일으켰다가 좌절당하기도 하지만 명예를 위해서 행진합니다. 포기할 줄도 알고 다시 용기를 낼 줄도 아는 존재였으며 죽을 줄 알면서 사소한 폴란드 땅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아는 용감한 자였습니다. 햄릿은 포틴브라스를 보고 감동을 받으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아양한 것입니다.

《오셀로》

“촛불을 끄자. 그리고 저 빛도 꺼야지. 타오르는 촛불, 너를 끄면 애석한 마음이 들 때 다시 그 불을 밝힐 수 있겠지만 교묘하게 짜인 문양처럼 탁월한 성품을 지닌 그대, 그대의 빛을 꺼뜨리면 그 빛을 다시 밝혀 줄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오셀로를 이룬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부장적

영국은 인본주의와 청교도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많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가부장제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었다. 딸(여성)을 자아의 주체성이 있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단지 소유물로 취급하는 가부장적인 남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이성적이지 못하며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여겨졌으며 항상 남자의 통제하에 두었다.

흑인 멸시, 백인우월주의

무아인은 711년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아랍계(系) 이슬람교를 말한다. 마우레인 또는 모르인이라고도 한다.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로부터 모로코에 걸쳐 살며 아라비아인베르베르인·흑인의 혼혈로 구성된다. 유목을 생업으로 삼고 자존심이 강하며 용감하지만, 연대감은 비교적 약하다.

자신의 검은 피부와 백인 귀족 청년들이 가지는 문화적 배경의 부재, 더불어 군사적 효용성에 따라 변하는 자신 신분의 위치는 오셀로로 하여금 자기 분열과 소외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오셀로: 겉보기에는 용감하나 귀가 얇아 질투심이 많은 성격

테스테모나: 온유하고 순수하며 은근 자기주장이 뚜렷한 성격

아아고: 뱀처럼 영악한 성격

캐시오: 순진하고 잘 이용당하는 성격

에밀리아: 사람을 잘 도와주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로더리고: 욕심이 많으며 잘 이용당하는 성격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1. “마귀가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는 처음에는 나처럼 천사의 가면을 쓰겠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에 나오는 마녀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맥베스도 한 번 읽어보세요

2. 오셀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3. 독=위험한 생각=죄(p. 128)

아아고의 독에 중독되어 가는 오셀로. 위험한 생각이란 자고로 독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처음 입에 넣을 때는 살짝 쓰던 것이 아주 조금의 양만 핏속을 파고들어도 뜨거운 용암처럼 타오르기 시작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의미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이 반응하지만 죄가 반복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욕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욥 20:16). 독사에게 물리듯이 죄에 서서히 물들게 되면 그 독으로 죽게 됩니다. 나의 유익을 좇으려다가 나의 몸에 독이 퍼져있지는 않은가요? 조금이라도 독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즉시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4. 아아고의 복수심

“그놈이 내 처를 덮쳤다는 의혹도 있어 그 생각을 하면 독약처럼 뭔가 내 안을 갹아먹는 것 같아. 아내에는 아내로 갹아 주지”

아아고는 오셀로가 자신의 아내를 간음했다고 믿었습니다. 아아고는 분노하면서 오셀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복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서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멍은 멍으로 갹아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를 다시 설명해주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갹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차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보세요.

5. 분별력 없는 신뢰

맥베스와 같이 높은 지위의 왕이나 장군은 대부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반역을 꾀하는 내면은 보지 못합니다. 분별력 없는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나는 겉모습과 소문에 가려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맙시다.

6. 캐시오는 아아고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 분별을 잃습니다. 그리고 취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에게는 방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잊게 만들고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올바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7. 아아고는 '장군님 제가 장군님께 충성한다는 건 장군님이 아십니까?'라고 오셀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 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 말과 같습니다. 그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요 21:15-17).

8. 아아고의 부인 에밀리아는 공범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9. 남의 악행을 보고 경계하다

"부디 신께서 저에게 그런 여인을 통해 가르침을 베푸시길 빌어요. 악행을 보고 배

우기보단 피하라는 뜻이길"

남의 악행은 곧 본보기입니다. 남의 행실을 보고 나의 행실을 점검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보여주시며 이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렘 10:2)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을 한 번 돌아봅시다.

10. 탐심

아아고는 부관 자리를 얻지 못하고 무어인의 가수 노릇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갖습니다. 모든 상황은 아아고의 탐욕과 불만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습니다.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생이 차지 않습니다."(합 25)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탐욕은 이상승배입니다.

11. 아아고의 악의 진화

"악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잠 12:5)

아아고의 교활한 계획과 속임수는 상황을 거듭해 나갈수록 발전해나갑니다. 로더리고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자신의 칼로 찌르기도 합니다. 시편에 아아고를 아주 잘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시 64:4). 진화된 악은 살인까지 스스로롭게 만듭니

다. 그러나 악은 “미운 생각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 하여도, 그 악의는 회중 앞에서 드러나기 마련”(잠 26:26) 일 것입니다.

12 양심의역할

“베니스인이 음란한 장난을 치면, 하나님께는 고백해도 남편에게는 절대 침묵하지요. 그들에게 양심이란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지, 죄짓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여된 양심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롬 2:15)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는데 애쓰라고 양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최소한의 윤리법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난 또 다른 것들을 찾아봅시다.

13 운명을 타하는 오셀로

“우리 비범한 사람들은 바람맞고 뿔을 달 저주를 타고나니 비천한 이들이 누리는 특혜만도 못한 운명이로구나. 하나 이는 죽음처럼 어찌할 수 없는 운명 뱃속에서 태동하는 순간, 그 저주는 곧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우리는 종종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운명을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마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잠 19:3). 우리가 분별력 없는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갈 때 올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지

혜를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14 오셀로의 아내 의심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은 자라면서 더 많이 생겨납니다. 사울도 다윗을 사기하고 의심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조차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도 제자들은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야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막연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5 오셀로의 모순적인 사랑과 희생

“죽더라도 이 아름다움 변치 않았으면, 그대를 죽여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테니”

살인을 저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오셀로의 모순적인 장면입니다. 오셀로는 자신의 의로운 희생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스데모나가 마지막으로 해명을 할 때 오셀로가 하는 말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희생이라 여겼던 그 일을 그저 살인으로 만들 셈인가?” 너무나 없는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오셀로와 같이 남을 의심하면서 옳지 않은 나의 행위를

정의로운 희생이라고 여기거나 정당화 시키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16. 오셀로가 그의 아내 데스테모나를 죽이지만, 그녀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열렬히 사랑했으며 자신을 명예로운 살인마라고 부르길 원했습니다. 변명일까요, 죄일까요?

17. 영혼의 죽음

“영혼마저 죽일 순 없어”

오셀로는 햄릿처럼 영혼의 죽음까지 생각합니다. 영혼마저 죽일 순 없다고 여기며 저지른 죄를 화개할 시간을 줍니다.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셰익스피어는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살아있다고 여겼습니다.

18. 데스테모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9. 로더리고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나요?

20. 오셀로와 아아고는 서로의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 들켰을 때 그들이 말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살면서 잘못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봅시다.

21. 오셀로의 자살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

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잠 1:32).

22. 오셀로는 아아고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수상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오셀로는 왜 아아고에게 계속 속았을까요?

23. 감춰진 것이 결국엔 모두 드러났지만 악은 원하던 바를 모두 이뤘고 무고하고 순수한 영혼들은 세상을 떠났다. 비극이다. 모두 죽고 나서 아아고는 어떻게 이 악을 처벌받을 것인가?

24. ‘악은 어째서 이토록 영리하고 교묘하고 간편해서 쉬이 인간을 비극으로 이끄는 걸까? 지금 시대의 악과 연관 지어 생각해봅시다.

《리어왕》

“없음은 없음만 낳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말할 자 아무도 없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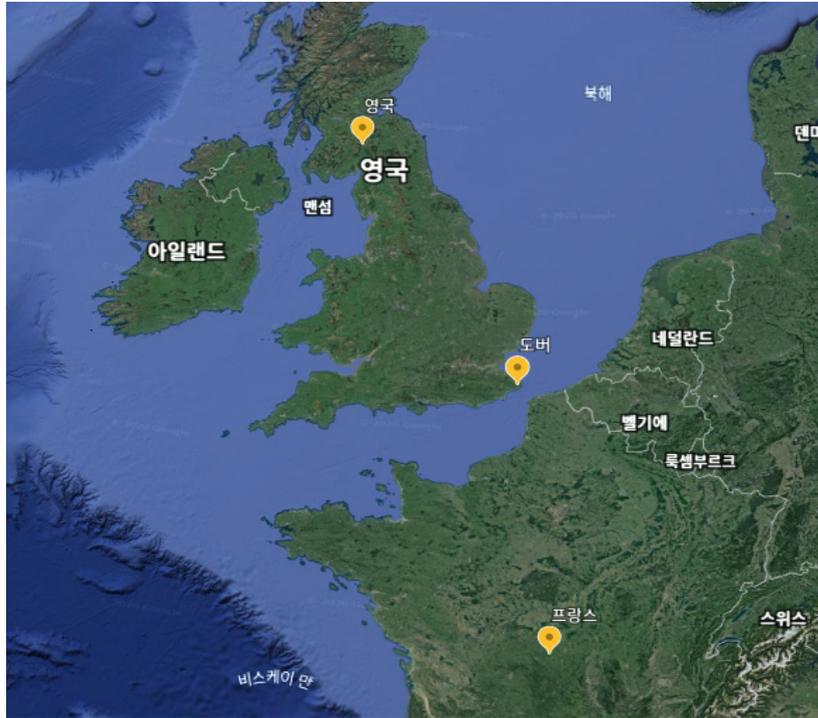
- 제 4 장 -

국가의 내부적 불안을 담은 리어왕

1606년 완성된 리어왕은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즉위한 제임스 1세 시기에 완성되었고, 왕 앞에서 공연된 희극이다.

《리어왕》은 고대 켈트족 신화로 알려진 리어왕 전설을 각색한 것으로(리어왕은 기원전 8세기의 전설적인 왕이다), 이는 여러 작가들에 의해 출간되기도 했다. 실제 리어왕 전설에서는 왕이 삼국을 통일하는 결말인데, 셰익스피어는 이 결말을 각색하여 자신만의 《리어왕》을 쓴 것이다. 때문에, 당대의 정치적 현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리어왕》에서 하나의 국가를 세 명의 딸에게 나누어 준다는 설정이 당대의 현실과 무관하진 않아 보인다. 제임스 1세가 즉위한 직후에도 영국은 내부적으로 단합되지 않았고 1605년에는 제임스 1세를 대상으로 한 암살기도까지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작가 본인이 나이를 막아기는 것과 함께 국가의 내부적 불안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바극적인 작품들을 많이 쓴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⁰⁸

08 《리어 왕 - 윌리엄 셰익스피어》, 27 Rue de Fleurus, 2020/05/16, https://m.blog.naver.com/yet_vain/221966128204



↑ 《라이어왕》 지도⁰⁹

등장인물 소개

리아 권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격

겨너틸/리잔 재산에 욕심이 많고 어떤 일에도 거짓말을 아끼지 않는 성격

코달리아 표현은 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성격

글로스타 선과 악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격

올리버 자신의 아내와 반대되며 정의로운 성격

콘웰 잘못된 행동을 말리지 않고 악행을 더하는 성격

에드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성격

에드먼드 형과 같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재산에 욕심이 많은 성격

켄트 주인에게 충직하며 자신을 바치는 성격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1. 읽기 전에 인생의 바극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봅시다.

2. 코달리아는 눈앞에 놓인 자기 몫을 두고 왜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했을까요? 눈 딱 감고 아버지 라이어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면 쫓겨나지도 빈손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버지 라이어왕의 사랑을 받던 코달리아가 그의 불같은 성격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대답이 분명 왕의 분노를 살 것이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달리아는 굳이 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효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겨너틸과 리잔이야말로 지혜롭

09 구글 어스로 화극에 나오는 주요 지역을 표시함

고 효도하는 딸이었던 걸까요?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마 15:4)

3. 코딜리어의 진정한 사랑

코딜리어의 사랑은 과묵하지만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주받으며 쫓겨났음에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어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코딜리어처럼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5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4. 코딜리어의 겸손과 솔직함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잠 16:19).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시 37:11).

5. 켄트의 충성심

신하 켄트의 태도가 옳은가요? 아니면 과도한 충성심에 가까운가요? 그러나 하늘 아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켄트의 충성심은 주의깊게 볼 만합니다. 성경에서도 종의 충성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

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눅 16:13).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야 합니다. 켄트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6. 광대의 역할

바보 광대는 어리석다는 외양을 방패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고 관객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셰익스피어 극에서의 바보 광대는 흔히 현명한 바보 광대로 불려집니다. 극에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극 중 인물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비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바보 광대는 오히려 희극성을 배가시키는 강화적 역할을 합니다. 바보 광대는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리어왕을 계속 비판하며 자극하여 재치 있는 말과 농담을 섞기도 하지만 즐겁다기보다는, 재미는 있지만 개운하지는 않은, 오히려 쓸쓸하고 절망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바보 광대는 리어왕 자신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숨겨진 자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악한 자들의 탐욕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미 7:3). 악한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집니다(단 12:10).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합동해서 일을 도모합니다. 악은 악으로 모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8. 대비되는 인물

대비 군들의 갈등의 원인과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감동적인 사랑 - 코딜리아의 라이에 대한 사랑

- 에드거의 글로스타에 대한 사랑

* 거짓된 사랑 - 자녀들과 리간의 라이에 대한 사랑

- 에드먼드의 글로스타에 대한 사랑

9. 배은망덕과 배신의 연속

옳은 말을 부정하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의 것도 아닌 것을 빼앗게 되면서 부녀, 부자, 주인과 하인, 형제, 자매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빼앗고 부정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엡 4:19)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누구를 속일 때 주체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10. 깨어있는 자, 올버니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입니다(잠 12:5). 그리고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합니다(잠 29:27). 올버니는 악한 자녀들 리건, 콘웰 공작, 에드먼드 사이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올버니는 이들에게 비겁하고 소심한 멍청한 남자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합니다. 우리는 선한 올버니처럼 부당함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당함 앞에서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담대히 진실을 고집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11. 라이왕의 변화

"왕으로서의 일과 의무는 그만두지만 왕이 가지는 권력과 위엄은 갖겠다." 라이왕이 세 딸들에게 왕국을 나눠주면서 한 말입니다. 나라의 통치 및 국토방위와 국정에 대한 부담에서는 벗어나지만 권력과 위엄은 포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편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 누가 가장 짐을 사랑한다 말하겠느냐?" 사탕발린 말에 라이왕은 흠족해합니다. 달콤한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던 라이왕은 차절한 Nothing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을 깨우치고 성찰하게 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져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알려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욥 22:29).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히 5:14).

12. "없음은 없음만 낳느니라."와 관련하여 이 책에서 "Nothing(없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3. 부모 자식 간의 불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4. 악인들은 모두 죄의 대가를 받지만 선한 자들 역시 고통을 받고 죽어나갑니다. 악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반면 선의 힘은 너무나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불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져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혀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니 불

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냐라(잠 115-7)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이 공중 권세 잡은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영원히는 선이 승리합니다.

15. 인상 깊은 인물과 소감을 말해봅시다.

16. 극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골라, 그 사람을 변호해보세요.

17. 리어왕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8. 리어왕을 읽고 슬퍼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병폐와 어둠에 싸인 이 극의 무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 다툼부터 욕심 내면의 어리석음, 그리고 부모 살인까지 지금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시대를 넘어서는 진정한 공경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19. 본래 모든 비극은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과 그 고통의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인간 자신에 대한 진솔한 이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리어 또한 고통을 통해 자기 인식에 이르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어 왕》에 그려진 고통과 악, 그리고 이를 넘어 어렵게 성취되는 선의 승리와 자기 인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남게 됩니다.

《맥베스》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사람의 얼굴만 보서는 그 마음속을 알아낼 재주가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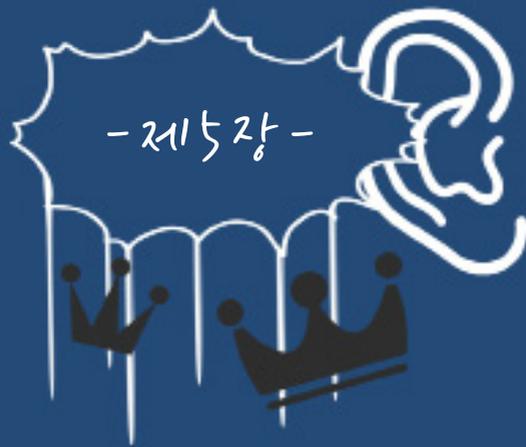
맥베스의 실존 인물, 맥 베하드

『맥베스』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 영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제임스 1세 치하에서 그의 처남이자 덴마크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4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궁정에서 초연된 것이다.¹⁰

실제 역사 비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인 맥베스의 실존 인물은 맥 베하드 맥 핀들라크(Mac Bethad mac Findláech)이다. 1033년 맬컴 2세가 사망하자, 외손자 당컨(인자한 당컨, Gracious Duncan)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맥베스는 일단 굴복했으나, 그 자신은 와가 쪽으로 맬컴 2세의 손자였으며, 아내는 1003년에 맬컴 2세와 싸우다 죽은 케네스 4세의 손녀 그루오크라서 혈통으로만 놓고 보면 당컨보다 우위에 있었다. 이런 맥베스에게 아내 그루오크가 끊임없이 복수심을 불어넣었고, 사람이 아닌 존재도 그를 부추겼다고 한다. 어느 날 맥베스의 꿈에 체격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세 명의 여인이 나타나 그를 크로마티의 호족이자 머레이의 호족,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컨 왕이 앞의 두 작위를 내리자, 세 번째의 실현 즉 왕위 등극을 노리고 칼을 잡게 된 것이다.

1039년 맥베스는 엘진 근방의 보스고완, 혹은 스미스 하우스라는 곳에서 당컨 왕을 습격하여 살해했다. 왕위에 오른 맥베스는 폭군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10 김준자, 『하룻밤에 읽는 셰익스피어 전집』, 평단, 2013, p. 246.



의자가 굳고 정의롭고 공평한 군주였다는 평가도 있다. 맥베스의 성마가 자칠어지고 신하들을 박대한 것은, 당권의 장남 맥컴이 잉글랜드의 노섬벌랜드에 머물면서 스코틀랜드 내의 당권 파를 재건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파이프의 호족 맥터프가 맥베스의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코틀랜드 궁정에서 도망친 뒤 노섬벌랜드 백작 시워드에게 맥컴의 환국을 도와달라 요청하여, 1054년 스코틀랜드에 노섬벌랜드 및 맥컴 파 연합군이 쳐들어갔다. 맥베스는 던시네인 근방에서 패배한 뒤 1056년에 럼페넌에서 살해당했고, 당권의 아들인 맥컴이 스코틀랜드 왕인 말 콜롬 3세가 되었다.

오래된 연대기에는 밴쿠오의 아들 플라언스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전설은 스튜어트 왕조의 윤색으로 보인다.¹¹



↑ 《맥베스》 지도 ¹²

11 막 베하드, 나무위키, 2021/02/16, <https://namu.wiki/w/%EB%A7%89%20%EB%B2%A0%ED%95%98%EB%93%9C>

12 구글 어스로 희곡에 나오는 주요 지역을 표시함.

주요 등장인물 알아보기

맥베스: 야심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두려움에 떨며 허약한 도덕관념과 운명을 이겨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양면적인 인물이다.

맥베스의 부인: 남편을 사주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으나 나중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하는 인물이다.

당권 왕: 맥베스가 살인을 저지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귀족들의 존중을 받던 인자한 왕이었으나, 맥베스의 미소 뒤에 칼날을 보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다.

마녀들: 맥베스의 사악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의 선과 악의 분별이 모호해진 그 가치 혼돈과 과도기의 시기에 인간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바리와 불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밴쿠오: 마녀들의 예언에 휘둘리지 않고, 그 예언을 맹신하다시피 하는 맥베스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다.

맥터프: 맥컴을 도와 시련의 시기에 빠진 국가를 위해 부당하게 왕이 된 맥베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결국 마녀들의 예언으로 맥베스의 죽음에 일조하게 된 인물이다.

맥컴: 당권 왕의 아들로, 왕의 죽음에 의문과 의심을 품고 타 국가로 떠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며 실천에 옮기는 인물이다.¹³

13 로티, 《맥베스에서의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enjoy~블로그, 2008/04/0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tothemir&logNo=9002972482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박영, 《《첫번째》등장인물 성격분석》, 다음 카페 맥베스의 모든 것 ㅋㅋ, 2008/11/06, <https://m.cafe.daum.net/ssmac/UzdH/6>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맥베스》는 인간이 욕망 때문에 서서히 타락하다가 선을 넘고 파멸에 이르는 작품들의 원조작이다. 맥베스는 자신의 직급(장군)에 맞게 일을 잘했다. 그래서 왕과 왕의 아들, 귀족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에 보상으로 코더의 영주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맥베스의 아내는 더 높은 권위를 탐을 냈고 맥베스에게 계획을 이야기한다. 그때 맥베스는 당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쉽게 동의를 하지 못했다. 고민을 하다가 동의를 하고 당건이 집으로 연회를 베풀러 왔을 때 그가 잠자리에 들자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당건 왕이 머물 방에 보초를 서던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에 그들이 했다고 뒤집어 썼었다.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모두 믿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맥베스 손에 죽었다. 그 뒤에 맥베스는 글래미스 코더의 영주가 되었다. 그렇게 지나가다 맥베스는 예전부터 맥베스를 도왔던 벤쿠오와 플리언스를 사람을 써서 죽이려고 했으나 벤쿠오는 죽었고 플리언스는 놓쳤다. 그때 그의 잠에서는 잔치를 열고 있었다. 맥베스가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벤쿠오의 유령이 보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맥베스가 당건 왕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맥베스의 부인은 음모를 꾸미 사람을 죽였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심하게 빠지게 된다. 결국 맥베스의 부인은 두려움에 못 이겨 자살을 하게 되고 맥베스는 음모였던 전쟁에 나갔다가 맥더프에게 죽었다. 그리고 나서 맥더프는 당건의 아들인 맬컴에게 왕위를 돌려주었다.

1. 마녀의 말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마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마녀들은 왜 예언을 했을까요?

(Hint. 마녀들은 맥베스의 욕망을 꺼내고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마녀들은 맥베스

의 내면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예언으로 맥베스의 아름다운 것을 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삼이나라”(요일 38) 하지만 마녀들은 내면의 어두운 면을 꺼내어 보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끼어들거나 자세한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이기는 하나 중립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역모를 저지르는 것은 마녀의 예언 때문이기보다는 맥베스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2 코더 영주의 회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닐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8-9)

2 맥베스의 자유의지

마녀들은 직접 절대적인 악을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범할 운명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은 모두 맥베스에게 있습니다. 이 극은 마녀라는 '운명적 요소'보다는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 '맥베스의 자유의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선한 면과 악한 면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맥베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자유의지를 책임 있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3 욕망의 씨앗

마녀들의 꼬임 부인의 부추김으로 서서히 맥베스가 변한 것 같으나, 맥베스의 마음속에 욕망에 씨앗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 작은 씨앗이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 안에 욕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갈 5:24).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씨앗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4 양심의 가책

악행을 저지름수록 높아지는 권위와는 반대로 내면은 점점 타락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기 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민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맥베스에게 인간적인 면을 느끼고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이다”(롬 2:15). 그렇다면 권력을 잡고 불안에 떠는 것이 권력을 갖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나요?

5 제4의 마녀

맥베스 부인은 제4의 마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맥베스 부인은 능동적이고 대담한 남성적 용맹성을 보여줍니다. p. 57에서 악행을 저지른 이후 맥베스와 부인의 태도 차이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냇물의 모든 바닷물을 쓴다 해도 깨끗이 씻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맥베스 부인은 약간의 물이면 깨끗해지는 쉬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맥베스 부인은 맥베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주변에도 제4의 마녀가 있습니까?

6 맥베스의 살인

맥베스는 결국 부인의 말을 듣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이는 잠 못 드는 밤의 시작을 알립니다.

7. “모호성” 색욕에 관한 과음의 모호성도 언급합니다(p. 60).

8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p. 87)

“악으로 시작된 일은 악으로 다져야 하는 법” 지위를 빼앗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야 합니다.

9. 허망함(p. 84)

“허망하구나. 모든 것을 잃고도 얻은 것이 없으니 뜻은 이루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구나. 살인을 저지르고 불안한 기쁨에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차라리 살해당하는 편이 낫겠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전 1:2 ; 5:10).

맥베스는 부당한 왕위 찬탈에 허망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를 얻고 나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난하든, 부유하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10.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p. 102)

마법의 여신인 헤카트는 맥베스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심술궂고 성질 급한 고집쟁이라고 말합니다. 마녀들이 맥베스를 도와주었지만 마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왕인 히스가야도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자 그는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가야는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가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습니다(대하 32:24-25). 나의 손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요?

11. "맹세를 했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역자, 그런 사람은 목을 매달아 죽어야 해" 이는 맥베스와 부인의 죽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p. 125)

12. 피와 밤의 무대

《맥베스》에서 밤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욕망과 짓눌렸던 감정이 활개치고 인간 내면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당건 왕과 밴쿠오가 살해되고, 맥베스 부인이 몽유병을 앓습니다. 일반적으로 밝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둠에 속한 일이나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20)

반면, 왕자 딸점은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 13:12)

즉, 밤과 암흑은 죽음, 죄 악과 연결되고 낮과 빛은 생명 덕 선을 나타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아가지 못하였다"(요 1:5).



Pop Quiz (p.87)

나의 귀먹은 베개는 무엇인가요?

13. 인생은 그림자 같은 것(p. 161)

맥베스는 "인생은 한낱 걸어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욥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자나지 않는다"(욥 8:9).

14. 악마의 교묘함

환영들이 나타나 맥베스에게 예언을 하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맥베스는 의기양양해지며 맥터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맥베스는 맥터프에게 살해됩니다. 맥터프는 여자가 낳지 않고,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밴쿠오가 했던 말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악마의 앞잡이들은 사소한 일에는 정직하게 굴어 우리를 사로잡고, 중대한 일에는 배반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요"(p.23). 악마의 교묘함과 배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악마의 교묘함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 하신 말씀과 다르게 뱀이 교묘하게 유혹한 사건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여도 "너희는 절

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창 34). 우리는 유혹하여서 해를 끼치려고 흔히 진실을 말하는 악마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15. 맥베스와 그의 부인의 죽음

맥베스와 그의 부인은 결국 죽음을 맞습니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죄의 샅은 사망”(롬 6:23)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잡니다”(잠 11:5).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인은 자의로든, 타의로든 멸망을 맞이합니다.

16. 맥베스의 왕위는 후손에 계승되지 못한다

결국 마녀들의 예언대로 맥베스의 왕위는 후손에 계승되지 못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겔 18:20).

17. 맥베스와 밴쿠오의 차이

맥베스와 밴쿠오는 마녀들에게 예언을 함께 받았지만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대로 되고, 밴쿠오는 마녀들의 예언과는 조금 다르게 끝이 납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데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데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뱀이다”(눅 6:45).

18. 선과 악의 공존

맥베스는 전쟁에 승리를 이끄는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장군입니다. 그러나 맥베스

는 당건 왕을 죽이려는 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일을 실제로 저지릅니다. 맥베스라는 인간 자체가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인간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경받고 충성스러움으로 존경받는 맥베스는 아름다운 운명을 살았지만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며 추해집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완전히 추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는 맥베스의 죽음이 아름다우면서 추한 죽음이었다는 역설로 완성됩니다. 또한, p12에서 “태양이 빛나는 곳에 선박을 부수는 폭풍과 무서운 천둥이 함께 있듯, 안심이 샘처럼 솟아오르던 곳에 불안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라며 아름다움과 추함의 공존을 내보였습니다. 마녀의 모습 또한 초자연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경계에서 활동한다는 믿음을 반영하여 계속해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미안》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 아프락사스가 대표적입니다.(나중에 데미안도 꼭 읽어보세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역설입니다. 선과 악은 구분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19. 맥베스의 의도된 범죄와 악행에도 비극적 결말에 대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Hint: 영웅 비극, 숭고한 비극)

20. 맥베스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21. 인간의 인생은 운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일까요, 개척하는 것일까요?

22. 맥베스의 운명이 비참하게 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나요?

《천로역정》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도다.”

천로역정 조선말로 옮기다- 최초의 영한 번역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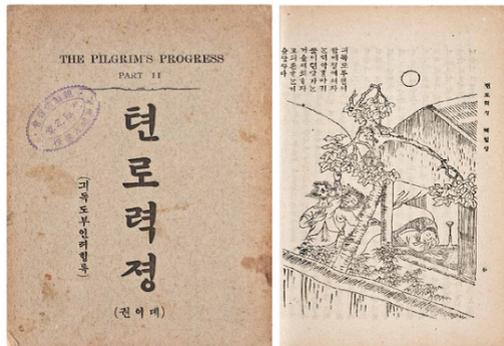
↑ 존 번연 《천로역정》, 제임스 게일 옮김 배재학당 삼문출판사, 1895 소장처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가독도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세계 최초의 갓 쓴 예수님 (제부)

구한말부터 식민지 시기에 가장 널리 읽힌 《천로역정》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부인 해리엇 여사와 한국인 이창직의 도움을 받아 영문 소설과 중문본 ‘천로역정’을 참고해 공동 번역한 최초의 한글 번역된 영문 소설이다. 1895년에 한글로 된 《천로역정》 제부가 나왔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한국 문화의 진수를 간파해 이를 서양에 소개하고, 토착적 기독교를 한국에 심어주기 위해 애썼던 선교사였다. 1888년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선교자의 신분으로 부산항을 통해 조선

- 제 6 장 -

땅에 도착해서 사십여 년간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는 1890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출간하였고, 수많은 우리 고전과 조상들의 저서를 읽고 번역할 정도로 우리말에 능통하였다.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 서양에 소개하는 등 어마어마한 저술을 남겼다.¹⁴

당시 책에 실린 삽도 42점은 기산풍속도로 유명한 조선의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의 작품이다. 1892년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개일 선교사가 1894년 12월 김준근을 찾아가 삽도 제작을 맡겼다. 이 책에 흠뻑 빠진 기산은 860년대 출간된 로버트 맥과이어 목사의 주석본 '천로역정에 실린 19세기 영국 화가 헨리 셀루스와 파올로 프리올로의 삽화를 참고하되 한국적인 풍속화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려냈다. 전체 구도는 영문본 삽화를 따랐지만 인물의 모습은 한국인 그대로 구현했다. 김준근은 죄짐을 진 크리스천을 박물상 가장의 등짐을 진 모습으로 대체했고, 예수는 갓 쓰고 도포 입은 모습으로 그려 넣었다. 김준근의 작품은 한국 초기 기독교 미술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⁵



↑ 존 번연 《턴로력령 대이관- 기독교 부인 려행록》, 릴라이어스 호튼 언더우드 옮김, 조선 야소교서회 1920

14 제임스 s. 개일,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1888-1897)』, 최재형 옮김, 책비, 2018

15 김나래, "갓 쓰고 도포 입은 예수님, 등짐 진 크리스천... 한국적 천로역정 보셨나요", 《국민일보》, 2018.02.08., <http://www.mytwel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

제2부는 1920년에 언더우드 부인이 번역했다. 제2부는 그밖에는 번역되지 않았고 인기도 없었던 모양이다. 제2부에도 10컷의 삽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김준근의 삽화와는 전혀 다른 화풍이다.

《턴로력령》 초판본은 상하 2권으로 나눠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미려한 한지를 사용하여 한 장 제본으로 만들어졌다. 최초로 번역된《턴로력령》초판본은 현대식인 쇠출판을 통해 초기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턴로력령》은 장대현교회 길선주(1869-1935) 목사가 읽고 감명을 받음으로써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신촌성결교회를 세운 이성봉(1900-1965) 목사도 전국을 다니며 '천로역정 부흥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목사는 '멸망의 도시를 장차 망할 상이한 의미'의 '장망성'으로 표현했다.

《턴로력령》 출판 당시는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상륙했을 초기였다. 19세기 한국은 열강들의 간섭에 국가가 흔들리고 부패와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생활이 참 어려웠던 때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내세의 행복을 접하게 되는 '천로역정 이야기'가 이 땅에 소개된 것이다.¹⁶

16 이효상, "19세기 조선, 기산 김준근 화백이 '천로역정' 삽화를 그리다", 《크리스천투데이》, 2020.09.28.,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4917>

천로역정 MAP

'명망의 도시'에서 '천덕'에 이르기까지 크리스토현이 거쳐간 하늘로 가는 역정의 길



명망의 도시
- 명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다
- 선도와에게 집을 준다



<크리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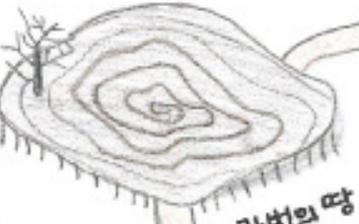
의심의 성
- 실망 거변에게서 탈출하다



초원
- 하나님의 강령을 따르고
영광 받은 마리아
축복하라



낙심의 불
유순
- 불에서 도움이 구해준다



마법의 땅
아름답다
- 선물 성령 불어
그물이 풀린다
- 풍채유하는 태양은
크리스토현이 깨어나



목사들 기쁨의 산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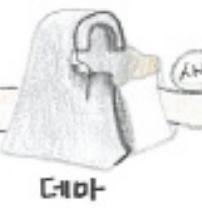
천덕 너머 도덕 마을
서득 된다
- 끝까지
선악의 반대



해석자의 집
- 이어나가지 비유들을 보다



천성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



데마
소금 기둥이 된
목의 아내를 발견하다



하영의 시장
- 믿음의 눈으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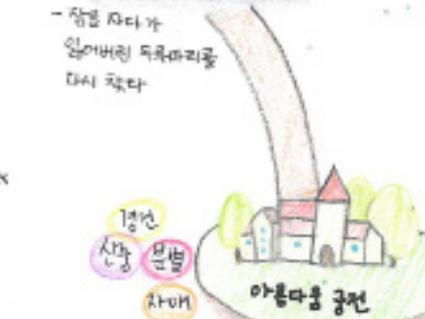
선'의 좋은 문



십자가 언덕
- 십자가 언덕에서 집이 풀린다
- 두루마리를 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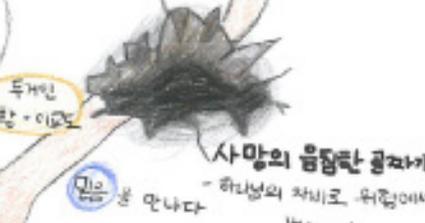
곤고산
- 잠들 자다가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찾다



아름다운 공원
경건
사랑
신앙
자비



노릇'의 영광
- 네 자비를 만나
천신갑옷을 입다
- 이슬처럼 맑은
정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하나님의 차비로 위험에서
벗어나다

《천로역정 1부》

천로역정 속 등장인물 분석하기	
이름	특징
크리스천	
유순 (p. 43)	
세속 현자 (p. 51)	
전도자 (p. 55)	
천박, 나태, 가만 (세 사람) (p. 82)	
허례와 위선 (p. 83)	
갑쟁이와 불신 두 사나이 (p. 90, 118)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아름다움, 궁전, 아가씨들) (p. 96)	
믿음 (p. 127)	
수다쟁이 (p. 139)	
허영의 시장 사람들 (p. 168)	
소망 (p. 173)	
사심 데마 (p. 173, 183)	
무지 (p. 207)	
작은믿음 (p. 209)	

* 나는 위 인물들 중 어떤 종류의 사람에 속하나요?

*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나에게 조심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1. 한 권의 책

크리스천은 책 한 권을 읽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심판 때 큰 불이 쏟아져 죽게 될 것을 깨닫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괴로움만 깊어갑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자를 만나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이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순례에 오르게 됩니다. 진리인 성경을 펼쳐보면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모두 죽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 써놓으셨고 예언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천로역정》과 함께 진리를 알아가 봅시다.

2. 유혹과 절망

(낙심의 늪, 곤고산의 정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결길 초원(p.191), 마법의 땅, 천성문으로 가는 강.)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곳곳하게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대담한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요?

3. 짐과 십자가

우리 각자의 어깨에 있는 커다란 짐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짐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짐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짐은 무엇인가요? 한 번 적어봅시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짐에서 홀가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짐은 사라지게 됩니다.

4. 공동체(함께)(p. 224-226)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 혼자 순례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동역자들인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믿음을 자길 수 있었던 것 2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 가운데서 양육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느 공동체에 있습니까?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위를 한 번 돌아봅시다.

5. 하나님 동행하심

왕 되신 하나님은 순례자들을 사랑하셔서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이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쉼 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움 궁전, 하나님의 강, 기

쁨의 산 등에서 영과 육체적으로 위로를 얻으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볼루온과 대적하여 싸울 때 죽을 자경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하신 도우심으로 건져주십니다. 안개 속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청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언제인가요?

6. 주위 사람들을 통해 조언하심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켜주실 수가 없으셔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의를 받았던 것을 까먹게 되면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주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 주의를 듣고 나서 까먹고 다른 길로 잘못 갔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를 들었을 때 영적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 죄를 받아들여게 된 계기(죄와 구원)

소망은 믿음을 만나기 전까지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신 스스로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통해 죄에 눈을 돌리지 않으려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노력은 했지만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유들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것을 몰랐고 죄(=달콤한 것)를 떠나기 싫었고 죄의식이 너무 고

통스러워 견디지 못했고 죄를 짓고 살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과 어떻게 결별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나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죄를 저지름으로써 내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인지 그 사실을 언제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나는 위에 소망이 꺾은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나요?

8. 두번째 생명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 악에서 벗어나 거룩한 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환영을 받고 영화로워집니다. 기도와 눈물과 하나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순례의 끝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다짐할 것을 써봅시다.

9. 사심과 크리스천(p. 173-179)

사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이 좋을 때만 교회를 갔고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믿지 않고를 반복을 하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옛 방식으로만 살아가며 새로운 것을 멀리합니다. 바르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므로써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평소에 나의 믿음은 사심과 같은 믿음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교회를 간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봅시다.

10. 믿음과 수다쟁이(p. 139~153)

믿음과 수다쟁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후에 죄에 대한 생각과 나의 행동은 어떤지 적어보고 믿음과 수다쟁이 둘 중에서 나는 어떤 타입인지 생각해봅시다.

11. 선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p. 235-241)

믿음과 수다쟁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후에 죄에 대한 생각과 나의 행동은 어떤지 적어보고 믿음과 수다쟁이 둘 중에서 나는 어떤 타입인지 생각해봅시다.

《천로역정 2부》

1. 하나님의 음성(p. 306)

암탉이 병아리를 다루는 방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병아리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암탉은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내었다.
- 특별히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는 가끔씩 내었다.

- 방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었다.
-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이 4가지 특징을 다시 보면

-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내신다.
-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리는 특정 상황에 가끔씩 내신다.
- 하나님이 우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가 있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 소리 = 음성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리, 즉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만약 있다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는지 적어봅시다. 그리고 만약 못 들었다면 현재 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생각해봅시다.

2. 어린 양의 태도(p. 307)

2부에서 크리스타아나(크리스천의 아내)와 그의 아들은 크리스천처럼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여정 중에 해석자와 함께 도살장에 가서 본 양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묵묵히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이 양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양을 보십시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며 죽음 앞에서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양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나는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마음

과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한 명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이며 그 한 명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하나님의 인도하심(p. 310)

“처음에 그대는 어떤 동기로 순례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해석자가 크리스타아나에게 묻습니다. 크리스타아나는 자신의 남편이 행복하게 자내고 있는 꿈을 꾸었고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보내신 초청장, 즉 그 꿈과 편지가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작용했다고 대답합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자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나요?



Pop Quiz

- 분별이 크리스타아나의 아들들에게 묻는 교리에 우리도 답해봅시다.
 -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 인간이란 무엇이며,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나요?
-

4.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함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의견이 많습니다. 크리스타아나가 말한 것처럼 죽을 때가 임박해서 화개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의견이나 어떤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데미안》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다.”



- 시구장 -

독일을 대표하는 영원한 청춘의 기록자, 헤르만 헤세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는 철학, 종교, 정의와 같은 이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기 가문의 의무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억누를 수 없는 창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광기에 가까운 열정 때문에 헤세는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기도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게 된다. 그때의 상황은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Unterm Rad)》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한 방황과 탈선과 절망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커져만 갔다. 헤세는 14세 때 '시인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였다. 헤세는 시와 작품을 쓰면서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의 첫 시집 '낭만의 노래'가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며 헤세는 비로소 문학가로서의 성공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헤세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조국 독일의 군국주의가 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의 나치즘이 광분하던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조국의 배신자, 매국노라는 언론의 지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저서는 판매금지과 출판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어려한 조국과 국민들의 비난은 헤세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거기에 더하여 부친이 사망하고, 부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막내아들도 병약하여 입원하게 되자 헤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경에 이르렀다. 결국 그 자신도 정신 치료를 받게 되고, 이것은 그의 남은 삶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정신 치료를 받으면서 헤세는 나이 마흔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헤세는 스위스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서툰 솜씨로 그리며 문학 창작에서 느끼지 못했던 희열과 평안을 느꼈다. 1962년 8월 9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오로지 자기실현의 길만을 걸었다.¹⁷

데미안에 숨어있는 역사적 상황 및 에피소드

1. 방탄소년단 2집 《WINGS》 수록곡 '피 땀 눈물' 데미안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2. 헤르만 헤세가 본명이 아니라 에밀 싱클레어라고 책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쓰기 전부터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신문 칼럼을 썼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전쟁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주로 썼다. 독일대사관은 헤세에게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그만두라고 위협해왔다. 헤세는 기묘한 해결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대리인으로서 에밀 싱클레어의 원고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사실 《데미안》은 2년가량 일찍 출간될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종이 수급이 여의치 않아 무명작가에게는 출간 기회가 쉽지 않았다. 헤르만 헤세가 저자라고 했다면 바로 출간되었을 것이다.

17 반가운, 7월2일-《1999년》지하철 8호선 완전개통 / 《1961년》헤밍웨이 사망 / 《1896년》독립협회 결성 / 《1865년》구세군의 전신 '그리스도교 전도회' 창설 /, 2013.07.0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ryxtry&logNo=101714375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3. 카를 구스타프 용의 심층심리학

헤르만 헤세의 작품임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스위스의 심층 심리학자인 용이다. 그는 헤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우 외람된 말이지만 당신의 악명을 깨뜨려 보았다”라고 썼다. 책의 내용이 용의 사상과 광장히 일치하고 실제로 헤세는 《데미안》을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정신 치료를 받으면서 용의 사상들을 접하고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치료 동안에 꿈 속에서 등장한 인물들이 《데미안》의 등장인물들이 되었다. 헤세는 치료를 통해 정신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창작을 위한 영감을 얻게 되었다.

4. 출간 당시 신드롬을 일으킨 책- 1차 세계대전

당시는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던 분위기였다. 주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라라는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있기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닐까. 젊은이들이 보기에 기성세대는 국가와 민족을 운운하며 젊은이들을 전선으로 내몰았고 우리는 전선에서 녹아내렸다고 여겼다. 당시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 적대감을 가졌다.

5.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문학이 떠오르는 이유와 비슷한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 세계 즉 어둠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있다. 또, 경쟁과 바쁨으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잊혀가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나를 나 자신의 알을 깨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다수 속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고독을 원하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이로써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체를 영원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사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자아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에서 당연한 것들이다.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재출발을 다짐한 헤르만 헤세에게 제2의 출발점과 같은 작품입니다. 청춘의 고뇌와 인간의 양면성을 담고 있으며 자아 찾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내면의 길을 지향하면서 현실과 대결하는 영혼의 모습을 치밀하게 그려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자 치열한 성장 기록인 《데미안》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에밀 싱클레어'가 삶의 근원적인 힘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 거짓말로 시작된 싱클레어 인생의 첫 사건

“나의 범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악마에게 손을 내민 그 자체가 죄였다.” 인류도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거짓말로 인해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로 인해 어떻게 되었나요?

2. 이분법적 세계관 - 밝은 곳과 어두운 곳(싱클레어의 집 선과 악이 맞닿아 공존하는 세계)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인데 명료함과 깨끗함, 부드럽고 친절한 이야기, 사랑과 존경 지혜가 있었다. 또 다른 세계는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아름답고도 무섭고, 사납고도 잔인한 일들이 사방에 있었다. 두 세계가 자기 한데 뒤섞여 있었다. 두 극단에서 낮과 밤이 나왔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싱클레어의 성장기도 그려했습니다. 말 잘 듣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넘어가다가 다시 과거를 청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한쪽을 강조하길 요구합니다. 일종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면인 페르소나인 것입니다. 반대되는 면도 있지만 사회 안에서 인정받고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한쪽만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나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곧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합쳐야 한다는 욕구가 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삶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은 무엇인가요? 또, 내가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없지않은가요?

3. 카인과 아벨 - 비판적 사고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카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해당할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주었습니다.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상식을 뒤엎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카인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아우라나 능력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을 거야. 카인이 너무나 힘 있고 위대해서 차별할 수 없었던 거지. 그들이 스스로 겁쟁이라고 말하기 창피하니 카인은 악인이고 하나님께서 표식을 줬다는 말을 자어냈을 거야.” 데미안은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싱클레어는 선악의 기준에 대한 관념적 사상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데미안이 소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아마 유연함일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라는 가르침입니다.

4. 신비로운 소년 구원자. 데미안, 악마를 연상시킨다?

데미안은 위기의 순간에 싱클레어를 도와주는 인물입니다. 데미안의 이름은 공공로에게도 영화 《오멘》에 나오는 악마의 자식 이름입니다. 데미안(Demian)이라는 이름 자체가 데몬(Demon 악마;악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5. 데미안, 싱글레어 내면의 인물이다?

분석심리학에서 꿈의 해석을 객관 단계와 주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데미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객관 단계 VS 주관 단계

주관 단계 데미안은 싱글레어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자기 내면의 대화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크로머와의 일도 스스로 해결한 것' 데미안이 싱글레어 내면의 인물일 경우 크로머 또한 내면 인물입니다. 주관 단계에서는 꿈에 등장하는 대상은 자신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데미안》의 모든 등장인물이 싱글레어인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크로머로 상징), 데미안이 되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객관 단계 각 등장인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데미안이 크로머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한 대답은 단순합니다. 크로머는 크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크로머도 두려움이 많은 어린아이일 뿐이기에 약점을 이용하면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6. 싱글레어는 왜 데미안을 외면했을까?

도움을 받은 후 싱글레어는 데미안을 외면합니다. "이제 친절한 손길이 나를 붙잡아 구원해놓으니 나는 결눈질 한 번 하지 않고 곧바로 어머니의 품으로, 잘 보존된 경건한 어린 시절의 안전함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의존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굴었다. 크로머에의 종속을 새로운 종속으로 바꾸어야 했다." 이는 전쟁으로 파멸해진 상황 속에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퇴행인 거다. 《데미안》은 힘든 현실 속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심리 치료 과정 중에서도 일종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세계에 들어간 싱글레어에게 데미안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어두운 내면도 인정하기 원합니다. 싱글레어는 내면의 어둠을 인정하기 두려워하고 결국 상황을 회피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리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된 곳에서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안정에서 벗어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에 감사합니다.

7. 자유의지가 없는가?

인간은 죄까지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의지만 확고하면 될 뿐입니다. 나방이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해내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소망이 온전히 들어 있을 때 그것을 강력히 원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방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8.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힌 두 강도(p. 73)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 "애초에 그는 범죄자로 그게 뭐가 되었던 범죄행위를 저질렀어. 그런 그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토록 눈물겨운 개선과 참회의 향연을 벌이다니 다른 쪽이 사나이인 데다 제 색깔도 분명해. 지금까지 분명히 자기를 도와준 악마한테서 비겁하게 마지막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성격이 뚜렷한 사람이 성서 이야기에서는 무시를 당해 어찌면 그도 카인의 후손 일지 모르지" 싱글레어는 유년기를 지나 본능적인 충동을 아는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그

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서도 해소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런 싱글 레어에게 데미안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싱글레어는 강한 개성을 가진 도둑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9. 악마에 대한 예배(p. 75)

“신은 선하고 고귀하고 아버지 같고 아름답고 높고도 다감한 어떤 존재다. 아주 좋아! 그런데 세상의 다른 건 모조리 악마의 것으로 돌려 버리지 생명의 바탕인 성생활 전체에 대해서는 그냥 똑 침묵하고 여자하면 아예 악마의 일이라거나 죄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 난 우리가 모든 걸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마치 유신 진화론과 같은 타협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까지 사랑하고 싶으시지만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함께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한다는 말은 공평하고 온전해 보이지만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데서 오는 타협적인 말입니다. 어두운 세계는 하나님의 범 위에 영원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진실된 시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10.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p. 77)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법이 영원히 진리입니다. 개인의 계율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율법은 변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성경에 영향을 준 당시 사회 문화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고 앞으로도 옳을 말씀입니다.

11. 다음은 데미안을 철학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데미안은 악마보다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철학은 옳고 그름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 경계에 대해 함부로 결정짓지 못하게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덕 관념 지식이나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부서트리고(알을 깨고) 더 나아가 생각하게 하고(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그 생각에 질문을 던지고 계몽하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데미안이 감히 성경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바라본 것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존의 체제와 서열 사회를 무너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좋지 못하고 불편하고,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저에게 데미안은 그걸 뒤집어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2. 출락동시

“새는 함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미안이 밖에서 어미새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대화가 나의 형성을 돕고 내가 허물을 벗도록, 내가 알껍질을 깨뜨리도록 도와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 올린 했다.” 알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론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지금 내가 깨야 하는 알은 무엇일까요? 또 알에서 나오는데 도와주는 어미새는 누구인가요? 이미 깬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달라졌

는가요?

13. 아프락사스는 (고대에 등장하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을 가르칩니다.

15. 피스토리우스의 진화론 이야기

“지구 표면의 격변이 물속에 사는 동물을 육지로 육지에 사는 동물을 물속으로 몰아붙였을 때 운명을 받아들이 각오가 되었던 표본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완수하고 새롭게 적응하여 자기들의 종을 구원할 수 있었지” 19세기를 지배했던 진화론입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인간과 세상은 모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맞닿아 전쟁의 아픔 끝에 발전하는 모습이 비록 모순적일지라도 기존 사회도 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16. 현실적 조연자 피스토리우스

헤세가 1915년부터 1년 반 동안 용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의식 속 잠재된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가르침이 피스토리우스에게 투영되었습니다. 헤세는 랑 박사가 운명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와 같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고 그저 문제를 풀듯이 해석하고 기존의 논리에 머무른다고 느꼈습니다. 즉, 싱클레어의 자아는 더 나아가고 싶었던 헤세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든 간에 내 운명의 목소리를 따라서 갈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찾기 힘든 질문입니다. 나다운 건 무엇일까요?

싱클레어에게 알을 깨는 법을 알려준 데미안

16. 싱클레어의 성장 과정

‘협박→ 구원 고민과 갈등→ 해소’를 반복하면서 싱클레어의 지식과 의식이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조연자인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날게 만든 도약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우리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지 하지만 동시에 그건 누구에게든 두려운 일이기도 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정해진 규정의 손길에 붙잡혀 보행자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자넨 안 그렇지 자넨 계속 날아오르고 있어” 두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도약은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군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p. 104).

17. “공산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프락사스라는 걸”(p. 136)

내 안에 정말 누가 계실까요? 지금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사리라”(요 14:26)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18. 동행(p. 137)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쉽지만 우리의 길은 어려워 자, 우리 함께 가보세”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좁은 길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서로를 마주 보는 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참다운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잡고 간다면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19.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p. 155)

“그는 온전히 홀로 서고, 자기 주변에 차가운 세계 공간만을 두지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가 그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홀로 그 죄값을 감당 사기도 하셨지만 동행하며 의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렵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마 26:39). 예수님은 아버지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20. 싱클레어의 사랑, 에바 부인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도 파스했고, 나는 달콤한 포도주처럼 그 목소리를 마셨다.” 이성의 사랑을 초월한 존경과 경외의 사랑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 존재가 이끄러는 상대는 그녀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는 단지 내 내면의 상징일 뿐이며 나를 나 자신 안으로 더욱 깊이 이끌어줄 뿐이라고 확고히 느꼈다.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고 나를 향해 성숙하고 향기로운 파사로움이 담긴 미소를 보내면 나는 나 자신 안에서 비전을 이루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얻었다.”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은 곧 싱클레어 자신의 내면과 운명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헤세가 표현한 여성은 욕망적인 여성을 넘어서는 중성적인 여성입니다. 헤세는 대극의 합의를 이룬 여성으로

그렸습니다.

21. 종말

“세계의 종말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옛것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 끔찍할 거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예언을 하고 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는 진정한 종말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에서도 종말에 대해 자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라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그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마 26:64). 그 때에 우리는 롯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의 심판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2. 전쟁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시각

전쟁에 대한 헤르만 헤세의 시각은 어려웠습니다. “전쟁은 개인의 이상이 아닌 집단 의 이상을 위해 죽고 죽이는 전쟁이다.”

17. 닳아가는 삶(p. 198, 199)

“나는 가야만 해. 너는 어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크로머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아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나는 검은 거울 위로 그냥 몸을 숙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

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싱글레이처럼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영적인 파트너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어진 우리가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데 앞장 서야 합니다. 나의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Pop Quiz

“누구나 한번쯤 ‘데미안’을 만나고 누구나 한번쯤 ‘데미안’이 된다!”

내 삶에 있어서 데미안은 누구였나요? 혹은 내가 데미안 같았던 적이 있나요?

싱글레이는 유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선의 세계에 살면서 악의 세계에 호기심을 갖고 동경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실제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되지만 데미안의 구원을 받게 되고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는 물음과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 책에서 데미안을 통해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태어나듯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려는 자는 다른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 아프라사스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선과 악.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모두 인정해야만 여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데미안과 같은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성령님이 강하게 요구하는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좁은 문》

“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는 반대로, 죽음이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 살아서는 갈라서 있던 것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거야.”

자신의 삶을 책으로 드러낸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의 종교적 갈등

1869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엄격한 청교도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이 교육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중퇴하면서 18세 때부터 문학에 빠지면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이네를 탐독했고 그리스 신화와 성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에 이 교육에서 남은 것은 자기혐오와 죄의식이었다고 한다. 이 금욕적이고 엄격한 청교도의 교육은 그에게 극심한 갈등과 함께 후에는 문학적 양분이 되었다. 소설 초반부에 그 양분이 나타나는데 주인공 제롬의 외숙모 뤼실 뷔콜랭(알리사의 어머니)에 대한 묘사에 드러난다(p. 19-22).

제롬과 그의 가족이 풍기는 엄격하고 종교적인 색채와 대비되어 뤼실은 탐욕적이고 육체적인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 당연히 제롬의 가족의 눈에는 이교도인처럼 보여졌을 것이고 결국 뤼실은 낯선 남자와 바람이 난다. 알리사의 극단적이라만큼 욕심을 버리는 모습은 아마 어린 나이에 이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촌 누나 마들렌은 그에게 예술혼을 유발시키는



평생의 동반자였다. 25세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지드는 첫사랑인 마들렌과 결혼했다. 지드를 연상케 하는 《좁은 문》의 주인공 제롬이 외사촌 누나 알리사와 이뤄지지 않는 것과 반대 된다.¹⁸

앙드레 지드의 걸작 《좁은 문》을 향한 상반된 평가들

《좁은 문》은 그의 생애와 문학적 경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두 번째 걸작으로, 무려 십팔 년 동안이나 구상하며 집필했던 지드의 노작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늙어 보이는가!'하며 탄식할 정도로 그의 전 작품들 중에서 고통스러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역작이다. 이 책을 만든 시간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와 대조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지드가 1887년 지드 어머니의 가정교사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애너 새클턴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단초(일이나 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첫머리)가 되었다. 그녀는 소설 속 알리사처럼 살풍경한 병원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지만 애너 새클턴의 모습은 소설 속 플로라 애슈버턴 양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사실은 지드의 부인 마들렌이 알리사의 모델이다.

그런데 삼 년 후에 이 소설의 제목은 《클레르 양의 죽음》 → 《좁은 길》 → 《좁은 문》 이렇게 걸쳐져서 완성된다. 명실상부한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은 평가에 있어서도 상찬과 폄하의 양극단을 달렸다. 가령 티보데는 '내적인 삶에 대한 프랑스로 쓰인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 하나라고 했으며, 뒤몽 윌렌은 '새로운 전율과 마법이 가득한 책'으로서, 걸작의 승고한 단순성에 문체와 기법이 도달한 지드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랑시스잡도 '이 이야기보다 더 피와 눈물이 가득한 것은 없다.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인 지드의 걸작

18 오로지, 《좁은 문 / 앙드레 지드》, 편집자의 사색수첩, 2016/02/0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ge_hw&logNo=22064003772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에 존경심 없이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희생된 알리사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나며 배아트리체가 신학적인 녹색 옷을 입고서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발로는 "병적이고 건강치 못한 작품이며 알리사의 미덕의 교묘함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마시스는 지드를 '막마 같은 사람'이라고 극언하기도 하는 등 평가가 다르다. 하지만 고상한 알리사의 절망적인 죽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단순히 '침묵하는 잔인한 고문자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의견 불일치에 지드는 담담한 태도로 그것을 수용했고 이런 반응을 반기워했다. 평론가들의 확실적인 반응이나 대중의 갈채를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부분함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작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지드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좁은 문》도 《배덕자》처럼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드 자신도 《좁은 문》을 기독교적 신비주의의 위협을 비판하는 '경고의 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체험은 그 사상의 출발점이자 초기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양상 중 하나인 심각한 종교적 갈등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리고 《좁은 문》은 《배덕자》와는 의식적인 반작용과 대립의 성격을 지닌 책이다. 《좁은 문》은 미덕을 중심축으로 지나친 신비주의적 신앙의 위협을 고발하며 소설을 전개하고 영웅적인 금욕주의자인 알리사를 통해 마들렌을 비판하고 지드 자신의 원한과 유감을 표명한 소설이기도 하다.¹⁹

청교도란?

청교도란 개신교 또는 복음주의를 뜻한다. 16세기 후반에 영국 성공회의 종교 개

19 앙드레 지드, 『좁은 문』, 동성식 옮김, 민음사, 2018, 작품 해설(p. 512-516)

혁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하려고 한 성공회 안의 일파 및 그 흐름에 동조한 프로테스탄트(반항하는 자들) 각 파의 총칭이다. 프로테스탄트는 구교인 천주교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켜 세운 그리스도 교단으로 가톨릭에 대항하였다.²⁰

부르주아란?

부르주아 계급은 구체적으로 16세기 지리상의 발견이나 해상 무역의 확대에 의해 경제적 실권을 쥐게 된 상인이나 지주 계층을 의미한다.²¹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제롬은 사촌 누이인 알리사를 사랑하지만, 그녀를 한없이 순결하고 성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하며 쉽게 다가서지 못한다. 청교도적인 신앙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순수하고 정신적인 사랑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신념 때문에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의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려 애쓰며 자신이 생각하는 알리사에게 어울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 더 고귀한 신앙에 이르러라고 다짐한다.

한편 알리사도 제롬의 사랑을 알고있으며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하지만, 제롬의 그런 마음에 자극받아 더 열렬히 신앙의 길로 정진한다. 마침내 그녀는 지상에서 이 사랑을 이루는 행복보다는 신 즉의 은총 속에서 영혼의 합일을 이루기를 열렬하게

20 nayeonyoo,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Quizlet, <https://quizlet.com/tr/389792397/%EC%B2%AD%EA%B5%90%EB%8F%84-%ED%98%81%EB%AA%85%EA%B3%BC-%EB%AA%85%EC%98%88%ED%98%81%EB%AA%85-flash-cards/>

21 소밍, 부르주아, soming님의블로그, 2014/01/1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omme91&logNo=120205511388&proxyReferrer=https:%2F%2Fwww.google.com%2F>

바란다. 그러나 제롬의 덕을 향한 앞길을 그녀가 방해하는 것 같아 그가 더 고귀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의 곁을 떠난다.

알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좁은 길'에 만족하고자 애쓰면서 마음의 고통을 참으려 하지만, 내면의 고통은 그녀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가 하는 회의 속에서 제롬에 대한 그리움을 아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외로이 죽어간다.²²

간단하게 간추리면 제롬은 외사촌 누이인 알리사를 사랑하게 된다.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화피와 주절을 나타낸다. 알리사는 지상의 인간적인 행복과 영혼의 종교적 구원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하지만 결국에 알리사는 현실적인 사랑과 행복을 단념하고 종교속으로 피신하게 된다.²³

1. 제롬 =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의 저자인 앙드레 지드는 10대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엄격한 청교도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앙드레 지드의 주변 사람들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앙드레 지드의 삶을 적은 책이며 제롬은 앙드레 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목표

"우리 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흰옷을 입고, 서로 손잡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다." 이때까지 알리사와 제롬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다. 현재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고 있

22 좁은 문, 위키책, 2021/02/20, https://ko.wikibooks.org/wiki/%EC%A2%81%EC%9D%80_%EB%AC%B8

23 lunar pulse 책임어주는여자, 2019/09/04, [lunar pulse]좁은문/앙드레 지드/을유문화사, <https://www.youtube.com/watch?v=0cXRpAKs8y4&t=186s>

습니까?

3. 행복과 덕행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신 모범은, 그분들이 내 마음의 첫 충동들에 부과하셨던 칭교도적 규율과 결합되어 내가 '덕행'이라 부르고자 하는 것을 향해 내 마음을 완전히 기울게 했다. 그리고 내가 마태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나는 행복과 덕행을 혼동하고 있었다." 이 내용에서 제롬의 행복은 알리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나는 현재 어떠한 것을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고 있나요?

4. '훌륭한' 사람

"난 내가 '훌륭한'이란 말을 어떤 뜻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구나!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외삼촌은 알리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훌륭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훌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 내가 생각한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5.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알리사는 제롬에게 우리는 오직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알리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혼자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요? 알리사는 제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나?" 제롬이 대답합니다. "같은 예배 대상 안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발견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거야. 네가 어떤 대상에게 예배드린다는 걸 알고서, 나 역시 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바로 그 안에서 너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 제롬의 예배는 순수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처럼 나도 제롬처럼 예배 안에서 누군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 않은가요? 하나님 안에서 결합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그 길의 목적

알리사는 제롬과 같이 들었던 설교 말씀의 좁은 문(길)으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마 7:13).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천국을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알리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인가요? 내가 생각하기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나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Pop Quiz

알리사가 택한 그 길은 제롬을 위한 길인 걸까요?

7. 죽음 = 다시 만나는 것

"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나는 반대로, 죽음이 다시 만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 살아서는 갈라져있던 것들을 다시 만나게 해 줄 거야." 알리사가 말하는 죽음에서의 만남은 구원을 받고 죽었을 때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알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죽

음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 밀어내는 사랑

알리사는 제롬을 밀어냅니다. 제롬의 상대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줄리엣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맺어주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와 같이 제롬과 알리사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알리사의 선택이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옳은 선택인 걸까요?

9. 알리사가 또 다른 이유로 제롬을 밀어낸 것은 아닐까요? 내가 만약 제롬이었다면 알리사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봅시다.



Pop Quiz (p.95-96)

나의 삶의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요? (ex. 제롬 : 나의 사랑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롬처럼 주변 인물이 사라졌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10. 기도란

제롬이 받은 알리사의 편지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 온 뒤로는 기도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전과 같은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 들어" 편지 뒤에는 자책을 하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알리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떤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적어봅시다.

11. 성장이란?

앞의 내용에 이어 알리사는 그 다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안에는 '성장'이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장에는 내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나는 외면과 내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성장했나요?

12. 사랑은 곧 믿음과 신뢰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떤가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Pop Quiz

알리사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요?

13. 그전까지는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이 같았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p. 155)

14. 알리사의 옷차림과 제롬을 만났을 때 했던 말로 추측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p. 163)

15. 내가 생각하는 천상의 기쁨이란 무엇인가요? 생각해봅시다.

16. 알리사의 인생

일기를 통해 알리사의 삶이 표현은 안 했어도 제롬으로 시작해서 제롬으로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이야기의 결말

알리사의 죽음으로 이들은 결국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결말이 꼭 비극이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알리사가 제롬에게 자신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했다면 어땠는지 생각해 봅시다.



Pop Quiz

내가 알리사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알리사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 생각해봅시다.



Pop Quiz

이야기 속에서 알리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요?
(ex. 친구같은 분? or 아빠같은 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랑’을 시로 표현하기

나는 사랑을 하고 싶다

물가에 서서

물에 비친 너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설레온다.

너와 눈을 마주칠 때면

나는 목이 말라온다.

나는 우리의 입맞춤을 생각하지만

너는 떨어지는 작은 잎새에도 요동한다.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다.

나는 좁은 길을 걷는다.

우리는 걷는다.

나는 너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

나란히 걷는 이 길이 너무나 좋다.

나는 그저 두려워하는 내가 되고 싶다.

너에게 갈 수 있는 별빛이 될 수만 있다면

이희성

사랑입니다

임예성

사랑은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사랑은 누군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커진다.’

사랑은 혼자 할 때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진다.

사랑은 ‘위대한 분이 주신 큰 마음’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주고 받으며 비로소 내가 된다.

《영화: 레미제라블》

"24601, WHO am I?"



- 제9장 -

프랑스가 낳은 대문호 빅토르 마리 위고

빅토르 마리 위고 (Victor-Marie Hugo, 1802년 2월 26일 - 1885년 5월 22일)는 프랑스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이다. 1802년 2월 26일 프랑스 스위스 국경 알프스 산맥 알자스 지방의 브장송이탄 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열 살 때 코르다에 기숙학교에 입학한 이래, 독서와 시 창작에 매료되었던 위고는 이듬해 그의 일가에 “나는 샤토 브라망(프랑스 문학가)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라고 기록해 두면서 불과 열한 살의 나이에 프랑스의 문호가 될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20살이 되던 1822년, 아내 아델과 결혼한 직후 그의 첫 시집인 《오드와 잡영집 (Odes et Poésies Diverses, 1822)》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필활동을 전개하여 왕당파적·가톨릭적인 색채가 농후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이후, 여러 잡지에 문학평론을 싣기도 하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간의 문학 논쟁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낭만주의 문학 이념의 초석을 다졌다. 빅토르 마리 위고는 프랑스 문학사는 물론, 유럽 문학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러한 문학활동으로 23살의 위고는 프랑스 왕실로부터 작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 최고의 영예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당시 반대파로 활동하여 국외로 추방되어 19년간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다. 이 망명생활은 결실이 풍부한 시기가 되었다. 1870년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으로 나폴레옹 3세가 몰락하면서 파리에 돌아온 후 1876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지만 1878년 뇌출혈로 건강이 악화되어 정계에서 은퇴했다. 1885년 파리에서 폐울혈로 사망한 그의 장례는 국민적인 애도 속에 국장으로 거행되었고 시신은 팡테옹에 안장되었다.

레미제라블, 무슨 뜻일까?

《레미제라블》은 1862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로, 잘 알려진 19세기 소설 중 하나이다. 제목인 레미제라블은 ‘불행한(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영어로도 The miserable people 이란 뜻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장발장》으로 소개되었다.

프랑스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1830-1932년에 있었던 프랑스 시민혁명을 소재로 하였다. 민중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사회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소설이다.²⁴

La misere(가난에서 오는 고통) + Un miserable(가난에서 오는 고통을 겪는 사람) = Les miserales(가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리우스가 빨간 깃발을 들고 바라케이트 위로 올라가 'Do you hear the people

24 이내, <영화 - 레미제라블 - >, 소소한 일상, 스킵은 풍경..., 2013/01/03, <https://blog.daum.net/hhhhhhhh88/992>

sing'을 부르는 장면을 볼 때에 프랑스 외젠 들라크루아 (la Liberte guidant le peuple) 그림을 많이 연상한다.²⁵

장발장이 훔친 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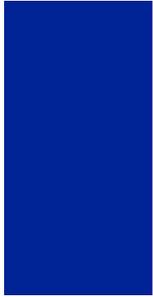


↑ 장발장이 훔친 빵, 캄빠뉴 /사진= 오픈 디스커스

장발장이 훔친 캄빠뉴는 유럽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빵으로, 바게트 이전에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용 빵이었다. 숙성과정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빵이다. 또 크기 역시 결코 작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공동 화덕에서 하나를 만든 뒤 마을 사람들이 이를 나눠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⁶

25 조승연의 탐구생활, 2020/0728, □□ 프랑스 국기의 비밀?! 영화 [레미제라블] 역사배경 설명 | 프랑스 혁명, <https://youtu.be/ikSxeTBPg7o?t=180>

26 캄빠뉴, 나무위키, 2021/02/16, <https://namu.wiki/w/%EA%B9%A1%EB%B9%A0%EB%89%B4>



프랑스 국가의 의미

파란색: 자유

흰색: 평등

빨간색: 박애⁰¹

'레미제라블' 역사 알고보면 더 재밌다.

프랑스 대혁명 7년

고개 숙여, 하늘에는 신이 없고 땅에는 자비가 없고 나는 죄가 없네. 주님은 관심도 없어. 고개 숙여, 모두 다 널 잊었어. 넌 영원한 노예일 뿐

- 오프닝 테마곡 'Look down'

1789년 프랑스에서는 극심한 굶주림과 신분제에 대한 불만으로 혁명이 시작되어 10년간 계속된다. 민중들은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왕이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을 선포한다. 이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진다. 전쟁과 혁명의 아수라장에서 경제는 엉망이 됐다. 날로 물가가 치솟아 민중들의 고통이 극심했다.

1796년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체포된다. 장발장은 정확히 감옥에

01 프랑스 국기, 나무위키, 2021/02/16,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EC%9D%98_%EA%B5%AD%EA%B8%B0

간 것이 아니라 '노역형에 처해진 것이었다. 유럽에서 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노예가 돼서 일하는 형벌을 받았다. 대부분 지중해 갤리선에서 노 젓는 일을 하는 수부(水夫)로 일했다. 처우는 말 그대로 노예였다. 음식과 의복은 형편없었고, 매질도 다반사였다. 혁명으로 왕은 사라졌지만 전근대적 형벌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혼란은 1799년 군인 출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 1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비로소 일단락된다. 이후 나폴레옹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도했으나 지나친 정복 야망으로 유럽에서 정복전쟁을 거듭하다가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여 프랑스 국력은 소진되고 1814년 나폴레옹은 권자에서 쫓겨나게 된다. 바로 이 해 장발장이 출소한다.

시민 왕과 산업화·부르주아, 알코올 중독자, 부랑아 그리고 매춘의 시대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 늙어갈 뿐.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삶. 주머니에는 1주일의 버틸 돈만 있어. 뼈 빠지게 일 안 하면 굶주릴 수밖에 없네.

- 공장 노동자들의 테마곡 'At the end of the day'

루이 18세의 뒤를 이은 샤를르 10세는 부르주아들과 결탁하여 선거법을 자기 유리하게 개정하게 된다. 이에 반대해 다시 공화주의자 시민, 노동자, 학생 부르조아가 결탁하여 1830년 7월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루이 필립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이 7월 혁명이 바로 레미제라블의 배경이다. 7월 혁명 이후 루이 필리프 왕위에 오를 때에 나폴레옹 시대에 마련된 법제도와 안정된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이 시기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된다. 장발장은 앞서 1820년대 프랑스 북부 소도시 몽레이유에서 새로운 구슬 공정을 개발, 가업가로 거듭나며 크게 성공했는데 이 지역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다른 프랑스 지역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된 곳이었다.

하지만 성장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도시인구는 갑자기 늘어났지만 주택 수도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불량한 위생으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이때마다 슬럼가에 사는 빈민들은 폐죽음을 당했다. 1831년 콜레라 대유행이 단적인 사례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물가도 함께 오르는데 임금은 턱없이 낮았다. 빈민가의 남성들은 시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여성들은 살기 위해 매음굴로 흘러들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려져 부랑아가 됐다. 이러한 현실은 바리케이드의 시대를 열었다.

자유를 위해 싸우던 민중들, 빵을 위해 싸우다

우리는 예전에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지금은 빵을 위해 싸우네. 평등이란 대체 무엇인가, 죽으면 평등해지지 기회를 잡아. 바바 프랑스

- Paris Look down, 가브로슈의 독백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던가 싸우다 죽자(Vivre libre en travaillant ou mourir en combattant)는 1831년 폭동을 일으킨 리옹 노동자들의 구호였다.

1831년 11월 프랑스 대표적 공업도시인 리옹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가담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프랑스 견직물 공업의 중심지로, 전체 수출액의 30%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노동자들은 오르는 물가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다며 '최저임금'을 협상했지만, 공장주 대부분은 이에 불응했다.

결핍하면 폭동이 일어났다. 1832년 6월 5일 나폴레옹의 부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민중의 편에 섰다고 평가받는 라마르크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폭동도 그 중의 하나였다.

뮤자컬과 영화 레미제라블에서는 다소 규모가 작은 폭동으로 묘사했지만, 실제

로는 바리케이드가 수십 개 이상 세워지고 약 800명이 사망한 대규모 폭동이었다. 하지만 왕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1835년부터는 폭동도 잦아들었다.

차참한 바리케이드 몰락, 그 이후...

이것은 그들이 미래에 이뤄갈 이야기

- 마지막 장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영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은 합창으로 끝난다. 이 장면은 1848년 2월 혁명을 암시하는 듯하다. 1835년부터 안정을 유지했던 루이 필리프 왕정은 7월 혁명으로 추대된 루이 필립도 처음에는 잘 정치를 하다가 시민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한다.

마침내 1848년 2월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돼 루이 필리프 왕정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다. 이것이 2월 혁명이다. 1851년 선거로 선출된 원조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다시 독재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나폴레옹 3세는 1870년 독일과 전쟁에 패배해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내주게 된다.

하지만 프랑스는 민주공화정이 정착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더 겪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거의 100년이 걸려야 프랑스는 극좌와 극우 사이를 오가지 않고 민주공화정으로 정착한다.²⁷

27 박은하, <'레미제라블' 역사 알고보면 더 재밌다>, 경향신문, 2013.01.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112101758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1121017581#csidxf89c74144f8088c9a55e4efa2221175)

성경적 가치로 다시보는 이야기

1 선의의 거짓말

장발장은 마티엘 신부가 한 선의의 거짓말 덕분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발장이 마들렌 사장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었지만 이것도 거짓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않은가요?



↑ 영화 《레미제라블》 포스터
제작 워킹 타이틀 필름, 출처 위키백과

2 법과 정의란 무엇인가

법을 수호하며 규칙과 정의를 지키는 자베르 은혜를 입고 도망자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발장. 누가 옳은 것일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정의롭고 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세운 정의의 기준을 놓고 대립합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장발장은 선한 인물, 자베르는 악한 인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발장-자베르의 대조'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도덕성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3 WHO AM I?

장발장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스스로 쫓기고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마치 인간이 원죄 탓에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끝없이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처럼

장발장은 중요한 장면마다 'Who am I?'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 인해 불안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 없음으로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역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해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노래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모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뜻, 부름, 양심의 소리 가운데 화파하지 않고 직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4 사울, 바울이 되다

그는 바울처럼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림니 사울이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장발장도 24601에서 다시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만남과 구원 이후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5 사울과 다윗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고, 십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다윗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

퀴즈타임 O!X?

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6. 무엇이 자베르를 죽게 만들었는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마리우스를 살려 내려는 장발장 앞에 결국 자베르는 무너져 내립니다. 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자베르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장발장의 모습에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리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법의 노예였던 자베르, 죽기 전에서야 자신의 신념이 옳았는가에 대해 자문합니다. 법이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법이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지 생각했더라면 자베르의 삶은 달랐을까요?

7. 불쌍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레미제라블! 당신은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 하나요?

8. 그렇다면 내가 자켜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요?

1.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햄릿은 어느 나라 왕자인가요?

- ① 영국 ② 덴마크

2. 셰익스피어 <햄릿>에서 햄릿 여자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① 오페리아 ② 코델리아

3. 햄릿이 숙부인 클로디어스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암살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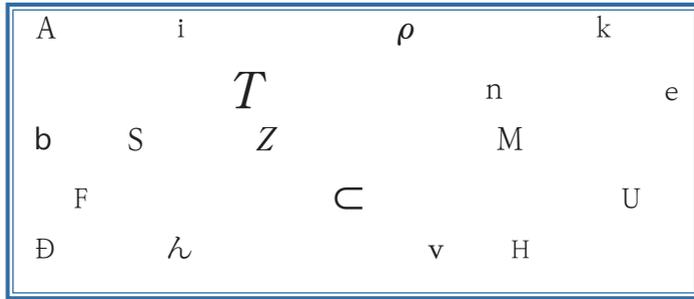
- ① 클로디어스 왕과 왕비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② 클로디어스 왕이 햄릿 왕을 살해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연극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③ 클로디어스 왕이 자객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여서
④ 마녀가 보여 준 환영을 보고
⑤ 햄릿의 절친한 친구인 호레이쇼가 가르쳐주어서

4. 오페리아는 궁전을 돌아다니며 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페리아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오페리아의 오빠 레아티즈와 햄릿이 펜싱 경기를 하다가 죽어서
② 사랑하는 햄릿 왕자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신을 몰라보기 때문에
③ 햄릿 왕이 독살되어서
④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그 살인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햄릿 왕자라는 것 때문에
⑤ 클로디어스 왕과 클로디어스 왕의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가 결혼을 해서

5. 아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자신의 아내의 악한 계획을 듣고 하지말아야 할 살인을 저질렀다.



답: _____

6. 크리스타아나 아들인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중 마태, 사무엘, 요셉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거룩하다. (O, X)

7. 십자가의 언덕에서 곤고산으로 넘어갈 때 크리스천은 여러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때 만난 사람은 세 사람, 허례와 위선, 잡쟁이와 불신이다. (O, X)

8. 크리스천은 벤치에 앉아서 잠이 든다. 이때에 놓친 물건은 크리스천의 등에 매고 온 잠이다. (O, X)

9. 수탉이 우는소리를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날이 밝아온다는 것 두 번째, 베드로의 죄와 그의 회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 날이 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O, X)

도 죄를 짓고는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는 의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란 이름을 갖고 살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와 다르게 해석하면서 산 적은 없습니까?

5. 인격의 하나님

크리스타아나와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자비심 양 등의 일행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안내자 담대를 보내주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10. “선한 믿음이며, 그대는 충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상 앞에 밝혔으니 그분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일을 자아다. 믿음 없는 자들이 속세의 환락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찬송하라 믿음이며, 그대의 이른 영원히 남으리니 그들이 비록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참 생명을 얻었도다.” 이 말은 믿음이 순교할 때 크리스천이 말한 것이다. (O, X)

11.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망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데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이다. (O, X)

《감사의말》

유관순 열사의 피가 흐르는 아우내 장터가 있는 이곳에서 책을 쓰다.

이 책은 학교 도서관에 꽂혀있는 세계고전문학 전집을 유심히 보다가 흥미로운 책들이 '고전'이라는 이름만으로 외면당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고전(古典) 문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정받는 훌륭한 책이다. 단순히 딱딱하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문화, 사회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많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그렇게 학교 도서관 책으로 '고전 문학 가이드'를 시작하게 되었다. 말 그대로 고전 문학을 읽는 가운데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사진과 포스트잇 등으로 가이드를 하였다. 책의 겉표지 뒤쪽 공백에 책과 저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제공하여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을 이와 비슷하게 구상한 이유와 동일하다. 또한, 페이지마다 중요한 내용이나 어려운 어휘들이 있으면 포스트잇에 적어 설명해 주는 동시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주는 질문들을 던졌다. 혼자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고비가 찾아온다. 우리 포스트잇을 통해서 함께 읽고 있는 느낌을 주고, 포스트잇이 언제 나올까 기대하는 재미를 주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제일 핵심인 것은 기독교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와 연관 지어서 기독교 핵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책의 맨 뒷장에는 책과 관련한 성경 구절들을 따로 적어 찾기 쉽게 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었다. 이 자료들이 좀 더 활용도 있기를 바랐다.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과 동시에 학교를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고전문학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핵심 가치로 본 세계고전문학'을 주제로 새로운 시점으로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더욱이 조영민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없었다면 고전 문학 가이드는 한 책이 아니라 그저 작은 포스트잇으로만 남아있었을 것이다. 조영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포스트잇은 한 권의 책을 탄생시켰다.

이 책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특별하다. 한 권의 책으로 나오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경험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조금씩 걸음마를 다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 책이 세계고전문학을 읽는 독자들에게 귀한 역할을 해주리라는 생각에 지금도 기쁘다.

책이란 저자가 소수라고 해도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이 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첫째로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고, 독자에서 저자가 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박한길 이사장님과 더불어 모든 드라마 공동체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별히 원고 정리를 도와주신 김수홍, 임창명, 조영민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책을 만들면서 함릿과 천로역정 연극에 성심성의껏 힘써준 '드라마학교'의 김채영, 김필주, 김향주, 박예빈, 신서연, 이유진, 이혜민, 임성은, 오영원, 정다운, 정지원, 최중호, 한가는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린다. Zoom으로 하는 언택트 연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고전문학 안에 담겨있는 기독교 핵심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층 더 쉽고 친근하게 전할 수 있었다.

끝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고전문학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

고 더 나아가 성경을 읽기 바란다.